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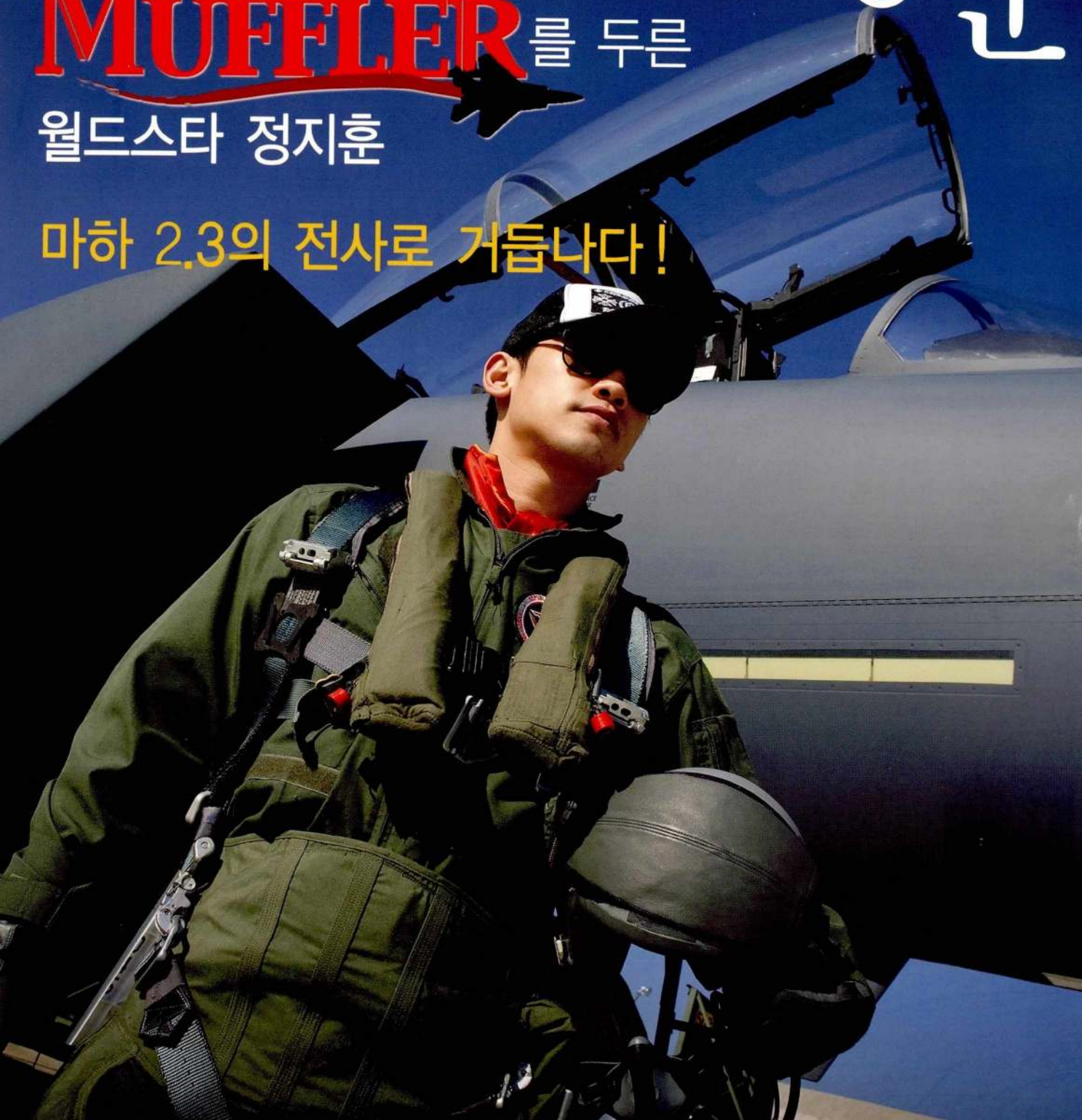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RED 레드머플러 MUFFLER를 두른

월드스타 정지훈

마하 2.3의 전사로 거듭나다!

공군





06 Leadership+ 그의 의견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08 World-Wide Vision 다국적 공군인들을 위한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

12 Global AF 이글의 새로운 변신 F-15SE(Silent Eagle)



18 기획특집 반세기 만에 돌아온 전설 「빨간마후라」

26 참모총장 스케치

28 AIR FORCE MONTHLY

32 Photo Sketch 푸른 하늘을 하얗게 수놓은 8기의 검은 독수리들

36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영하 주 레바논 특명전권대사 서면 인터뷰

40 생각하는 그림 정직이 제 1의 지혜

42 Into the Community 공군 야구 친선 경기 현장 속으로

COVER STORY



대한민국 최초의 공중 액션 블록버스터이자 《빨간마후라》 이후 4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할 공군영화 「레드머플러」 출연진들이 제11전투비행단에 찾아왔다. 공군인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애환을 담은 《레드머플러》의 성공적인 제작을 기대한다.

CULTURE 36.5

46



- 46 Hollywood English 토르-천둥의 신
- 48 Behind the Canvas 베를린 국립미술관
- 50 인생은 아름다워 투란도트, 그 치명적인 냉혹의 아름다움
- 52 Preview 4월의 문화행사

OPINION

54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2월호를 읽고서
- 54 Health Diary 4월은 체력검정의 달, 건강하게 합격합시다!
- 56 책마을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 길 21
- 57 독자엽서

MONTHLY MAGAZINE

VOL. 394. 2011. 04

발행일자 2011년 3월 28일(통권 제394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기획·편집**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기용호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2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희망]**이다. 현재 공군 부사관을 꿈꾸는 내게 희망 01
을 주기 때문이다. 공군지는 공군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
게 도와주는 선생님 같다. 2월호에서는 <기획특집> '미래항공전장
의 주역, 스텔스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이 재미있었다. 각 나라들
은 스텔스 전투기를 위해 투자하고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흥
미로웠고, 우리나라에서도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 및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전북 전주시, 김주진

02 월간 「공군」은 **[지도]**이다. 가야 될 길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
한반도같이 전쟁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
군의 요모조모와 미래 발전방향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도
라고 생각합니다. 2월호 <기획특집> '미래 항공전장의 주역, 스
텔스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 덕분에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투기 개발 실정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중국마저 5세대 전투
기 비행을 성공시켰다니 놀랍네요. 공군의 전력증강이 곧 한국
의 안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네요. 앞
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전북 익산시, 온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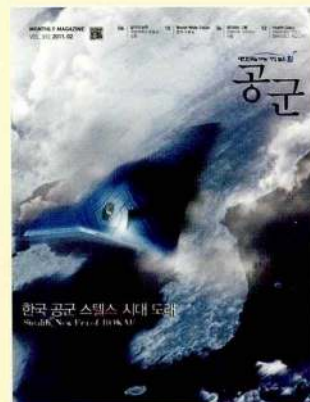
월간 「공군」은 **[의무]**이다. 남편이 공군이라, 아무래도 의무처 03
럼 자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2월호에서는 <Health
diary>의 '2011년 공군장병 건강의 시작: 공아담의 유산 전립
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글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으로 태어나면 80%가 걸린다고 들어있어요. 남편
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데, 전립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어
느 정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전북 장수군, 조창임

04 월간 「공군」은 **[탐견]**이다. 영화 탐견처럼 깊은 감동을 주며, 주
인공 탐 크루즈처럼 흥미롭고 매력적인 정보들로 넘쳐나니까!
이번호에서는 <기획특집> '미래 항공전장의 주역, 스텔스 전투
기 도입의 필요성'과 <생각하는 그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
람'이 제일 좋았어요. 특히 스텔스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에 공
감되네요. 스마트한 스텔스를 도입하면 대한민국 국방안보 또
는 국가방위에 크나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 서울 동대문, 박종선

월간 「공군」은 **[높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05
힘 공군의 공식 잡지이니까! 안녕하세요. 이번호에서는 <주말N
GO!>의 '천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기사가 참 좋았어요. 제가 경주에 4번이나 갔다 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답니다. 불국사, 천마총, 첨성대는 가보았는데,
 나머지는 안 가봤더군요. 올해 아이의 여름방학 때 꼭 갔다 와
야 할 것 같습니다. 경주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줄 처음 알
았어요. 월간 「공군」 감사합니다.^^ - 전남 여수시, 방태숙

06 월간 「공군」은 **[희망]**이다. <Hollywood English>를 통해 영어
공부를 함과 동시에 영화 내면의 감동을 내게 전해주는 희망
같은 잡지이기 때문이다. 이번호 '더 로드' 재밌게 읽었어요.
요즘 월간 「공군」 덕에 하루하루 잠깐이라도 심심치 않은 시간
을 보내고 있어요. 읽다가 생각난 건데, 여러 공군장병 전우들
의 다양한 보직들과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있었
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 평택시, 이석준



Global & Insight

그의 의견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 Leadership+

다국적 공군인들을 위한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

* World-Wide Vision

이글의 새로운 변신 F-15SE(Silent Eagle)

* Global AF



LEADERSHIP^P

그의 의견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과, 그 사람 자체를 구별할 줄 안다. 동일한 것으로 규정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때로 우리는 “어? 내게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놀랄 정도로 내 안의 또 다른 많은 모습을 보여 놀라기도 한다.

무슨 말인가?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말 한두 마디로 사람을 규정짓고, 그 대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 고착시켜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이다. 토론을 하다가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 의견을 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되며, 구성원이 자기와 똑같이 폭탄주를 즐기지 않는대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를 쉽게 동일시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토론을 하다가 역설을 잡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는 일이다. 길거리에서나 사무실에서나. 그래서 오죽하면 ‘성숙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어느 대학에선가 있었다. 또한 자녀가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체벌을 가하는 것도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바로 이 ‘의견과 사람 그 자체’의 다름을 인정하거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구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디어에 비친 정치권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안에 따라 때로는 강경할 수도, 때로는 온건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나와 같은 의견이고, 다음에는 나와 다른 의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지금 같은 모습은 그렇게 자주 연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조직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사는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기한 부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불이익까지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하 직원은 자기 의견에 대한 상사의 노골적인 비판과 거부에 대해 인신공격쯤으로 생각하며 기분이 저조해지고, 그 상사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결국 권위적인 집단에서는 중요한 회의일수록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침묵하게 되고, 중대한 결정이 목소리 큰 사람의 얘기나 독선적인 상사의 방법으로만 해결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된다는 복지부동은 바로 이런 데서 생겨난 게 아닐까.

사실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는 성숙된 사회다. 또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

하는 사회야말로 비전 있는 내일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늘의 '잉여사회(Surplus Society)'는, 비슷한 교육을 받은 비슷한 사람을 고용하여,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하며, 비슷한 품질과 비슷한 가격의 비슷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비슷한 회사들로 가득 차서 넘쳐나는 잉여품 사회이다.”

과거 <평균 비즈니스>에 실린 노드스트롬의 말이다. 아마도 이런 사람 10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99명은 잉여인간일 것이다. 엄청난 교육비를 쏟아 부은 한국 교육의 현실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선진국에서는 토론이나 선거가 끝나면 상대방을 축하해 준다. 의견은 다르지만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의견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와 가치관, 상상이므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에 가까운 것일 뿐인데 왜 미워하고 흥분까지 해야 되겠는가.

나는 이 구별을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시도해 보았더니 체벌 정당화가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을 경험했다. 직장에서도 직원의 의견이나 행동에 정확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였지만 교육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월요교육회의는 항상 활기 넘치고 때로는 엉뚱하나, 언제나 'That's O.K.'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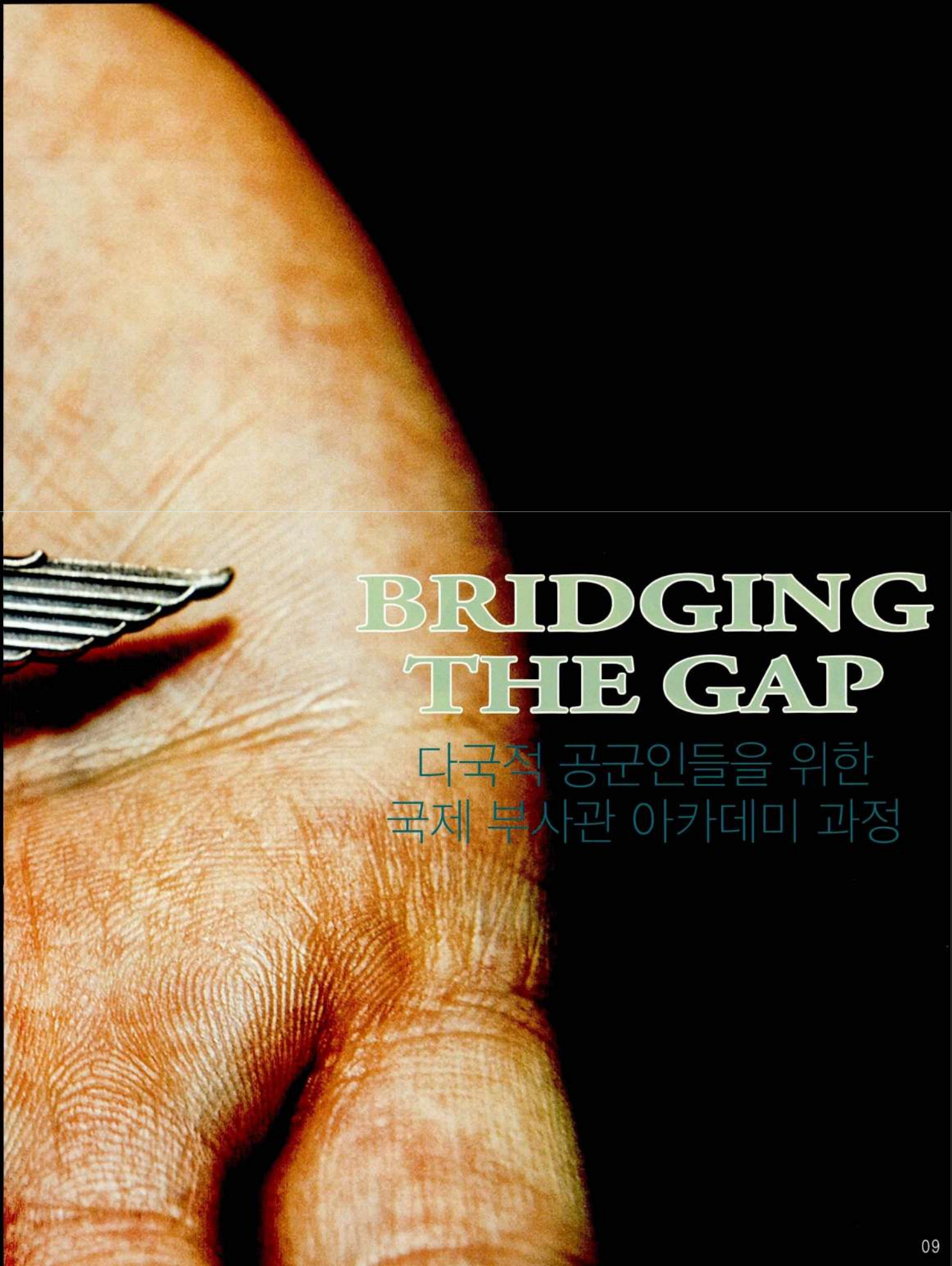
한번 상상해 보라!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의견이나 행동을 사람과 연계시키지 않았을 때의 놀라운 결과를... 아무도 그들의 일시적 행동이나 말을 그들의 전부인 양 매도해 버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에너지와 잠재력을 쏟아낼 것이고, 교실은 창의력과 활력이 넘치며 우리의 미래는 훨씬 밝아질 것이다.

빌 게이츠는 “MS사의 유일한 자산이라고는 직원들의 상상력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 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상상력이 거침없는 의견으로 뿜어져 나올 때, 가정에서는 체벌이 없어지고, 사회에서는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립되며,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고 축하해 주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AF**



학생들은 텍사스 래글랜드 (Lackland) 공군기지에서 개설한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을 마무리하면 수료 배지를 받을 수 있다.





BRIDGING THE GAP

다국적 공군인들을 위한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에 학생들이 검열을 받고 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래클랜드(Lackland) 공군기지에 위치한 미주 공군 아카데미(The Inter-American Air Forces Academy)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느 학교와는 확연히 다르다. 학교생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창회, 최고 미남 미녀 콘테스트는 상상할 수 없고,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학교를 지키고 계실 선생님이나 대수학, 생물학 같은 과목들도 미주 공군 아카데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대신, 이곳은 북미와 중남미에서 온 각 지역의 군인들이 한데 모여 함께 공부한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에게 리더십과 조직관리를 가르치며, 무엇보다 여러 나라의 공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이야말로, 이곳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어떤 과정보다 학교의 교육이념을 잘 나타낸다고 하겠다.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은 전문적인 부사관을 육성하고, 이들이 전시에 단위부대를 이끌고 관리할 수 있는 전투형 공군 부사관으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라고 벤 미란다(Ben Miranda) 중사는 전한다.

미주 공군 아카데미는 단순히 리더를 육성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호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의미를 둔다. 노턴 슈워츠 공군참모총장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다섯 가지 우선순위를 언급했었는데, 그것들 중 두 번째가 바로 “타군이나 타국 군 조직과의 파트너십”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이야말로 우리가 이곳에서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북미와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와준 공군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학습 분위기에서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고, 특히 개개인별이나 소속 국가별로 각기 다른 소속의 사람들에 대해



레오나르도 하사와 조지 하사는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을 졸업한 제1기 미 공군 참여자들이다. 레오나르도 하사는 푸에르토리코 신병모집자이고, 조지 하사는 언어 사용에 능통하며 몬테레이 캘리포니아 주 지역 출신이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미란다 중사가 말했다.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은 공군 전통의 부사관교육과정과는 한 가지 차이점을 빼고는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그 차이는 바로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곳에 모인 미주 국가 공군병사들은 모두 스페인어 사용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스페인어로 진행됩니다.”라고 미란다 중사가 알려졌다.

수업은 총 7주 반 동안 진행되며, 8명에서 14명 사이의 학생들이 의사소통, 리더십, 무기체계 운용 등 세 가지 분야로 짜여진 교육을 받게 된다. 각 분야마다 각



애빌라 상사가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개인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단들을 준비해줄 뿐, 그 이후에 무엇을 배우고 본인 국가로 돌아가 어떤 자원을 사용할지는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라고 교관인 크리스찬 카스틸로(Christian Castillo) 하사가 말을 이었다.

실제로 교육생중 일부분은 본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자신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가르칠 것을 목적으로 수업을 듣기도 한다.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먼저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을 우리나라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교육받는 것은 나에게나 내 조국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과테말라 공군 소속 월터 애빌라(Walter Avila) 하사는 이야기했다.

특히, 에콰도르나 과테말라, 페루 혹은 온두라스 지역 등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이견 단지 행운만은 아니다. 대부분 지역의 학생들은 이전에 미국에 다녀온 적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나쳐버리기엔 아까운 미국의 명소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집안에 놓는 작은 장식품이나 전자기기를 같은 기념품보다 그 과정동안 형성된 우정과 유대감을 갖고 집으로 들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각자가 무슨 나라 출신이든지 간에, 졸업을 하고 본국에 돌아간 다음에도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며 카스틸로 하사가 전한다. 전화를 사용하거나, 이메일이나 낱히 발전해가는 소셜 미디어, 예를 들어 페이스북(Facebook)이나 마이스페이스(Myspace) 등을 통해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애빌라 상사는 "나는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을 미국에 머무르면서 매우 즐겁게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의 목적은 서로에 대해 더 배우고 함께 졸업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는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들은 수업을 임무현장과 부합하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써 미국을 제외한 아메리카 대륙국가 지원자들만 참여가 가능했던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을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미 공군 부사관들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아카데미 교육의 목적은 국가 간 팀워크를 향상시키고, 타국 공군 장병들과 미 공군 장병들이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란다 중사에 따르면, 매 수업시간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열심히 수업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수업 중 토론이나 의견교환을 적극 권장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리더십의 원칙에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애빌라 상사는 "나는 내가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함께 과테말라로 돌아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과 생각과 경험을 공유했던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국제 부사관 아카데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 공군과 우방국군 사이에 신뢰와 파트너십을 증진하며 우호를 다지는 일이다. **AF**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등장으로 F-15는 최강의 다목적 전투기로 재탄생했다.
(사진 / USAF)

이글의 새로운 변신 F-15SE(Silent Eagle)

주요 '스텔스' 전투기 소개

연재순서

1. F-35 Lightning
2. F-22 Raptor
3. **F-15 SE**
4. Eurofighter Typhoon

* 본 란은 공군의 차기 FX사업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제작사 보잉은 F-15E에 스텔스 성능을 부여한 F-15SE(사일런트 이글)을 2009년 선보였다. (사진 / 보잉)



전투기의 강함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뛰어난 추력과 강한 생존성으로 30여 년간 하늘을 지배했던 전투기가 있다. 바로 F-15 이글 시리즈이다. 전천후 제공 전투기로서 1972년부터 비행을 시작한 F-15는 무려 5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현역을 지키고 있다. 미 공군은 그 최종형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2025년까지 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역사로 사라져 가는 듯한 F-15 시리즈는 21세기에 이르러 놀라운 파생형을 선보였다. 바로 F-15SE '사일런트 이글(Silent Eagle)'이다. F-15A에서 SE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발전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독수리 비상하다

F-15의 역사는 미군의 현대 전투기 역사와 방향을 같이한다. 한국전에서 F-86 '세이버(Sabre)'의 눈부신 활약 이후 미 공군은 대지공격능력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F-105 '썬더치프(Thunderchief)'나 F-111 '어드바크(Aardvark)'와 같은 강력한 공대지능력을 갖춘 침공용 전투폭격기가 개발됐다. 하지만 적 전투기를 먼저 제압하고 제공권을 확보해야 효과적인 항공작전을 펼칠 수 있는 법이다. 미 공군은 이런 사실을 월남전의 쓰라린 경험으로 체감했다. 게다가 소련에서는 MiG-25 '폭스배트(Foxbat)'와 같은 강력한 BVR(Beyond Visual Range) 전투기가 등장하자, 미 공군은 자신들의 획득전략이 잘못되었음을 절감했다. 따라서 1960년대 중반 차세대 전투기는 우수한 제공전투기여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1969년 전 세계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미 공군은 맥도널 더글라스(現 보잉)의 F-15 '이글(Eagle)'을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했다. 그리고 약 5년 뒤인 1974년 11월 F-15A 이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었다. 특히 F-15A/B(A형은 단좌/B형은 복좌)는 강력한 AN/APG-63 펄스도플러 레이더와 스페로우 및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 등 효율적인 무장을 갖추어 세계 최고의 제공전투기로 자리매김했다. 미 공군은 무려 360대의 F-15A/B를 도입했다.

한편 1980년부터는 신형인 F-15C/D가 미 공군에 배치되면서 이글의 전설은 계속되었다. 주력 F-15C는 강력한 APG-70레이더를 장착하여 적아식별 능력을 향상시켰고, FAST(Fuel And Sensor Tactical; 연료 및 센서 전술능력 강화) 패키지를 장착하여 행동반경을 비약적으로 연장했다. 또한 ITEWS(Integrated Tactical Electronic Warfare System; 통합전자전체계)를 장착하고 JTDIS(Joint Tactical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합동전술데이터 링크체계)를 채용하여 첨단 제공전투기로서 능력을 강화했다. 이에 미 공군은 F-15C형을 408대, D형을 62대 도입했다.

제4세대 전투기의 최강자, 스트라이크 이글

F-15 시리즈는 전 세계적인 성공이었다. 이스라엘이나 일본, 사우디와 같은 부국들은 앞다투어 F-15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명불허전의 공대공 능력은 실전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특히 이스라엘 공군의 F-15는 시리아 공군을 상대로 무려 '56대 0'이라는 격추교환율을 올렸다. 미 공군은 1991년의 걸프전, 그리고 1999년의 코소보 항공전에서 격추기록을 세웠으며, F-15는 모든 기종에 걸쳐 '104대 0'이라는 놀라운 실전기록을 자랑한다.

한편 현대의 빠듯한 국방예산 속에서 순수하게 공중전투만을 목적으로 만



F-15 시리즈는 무려 104 대 0의 뛰어난 실전 격추율을 자랑하는 제공 전투기의 제왕이었다.
(사진 / USAF)



들어진 공중우세 전투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대부분이 2차적으로 공대지 공격능력을 갖춰야만 했다. 그래서 2가지 이상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로서 공대공 전투나 공대지 공격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정찰이나 전자전 임무까지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가 화두가 되었다. 이렇게 전투기가 다목적화되는 트렌드가 자리잡자 F-15는 다시 한 번 변신을 꾀했다. 바로 F-15E '스트라이크 이글(Strike Eagle)' 이 등장한 것이다.

F-15E는 기존의 A~D형과는 전혀 다른 전투기였다. E형은 기체의 60%가 새로 설계되어 이륙중량 및 무장적재량이 증대됐다. 또한 공중대기임무가 부여되어 장시간 비행이 요구됨에 따라 기체수명이 C형의 2배인 16,000시간까지 연장됐다. 비행조종계통도 2채널 디지털 계통으로 개선되고 지형추적 레이더와 신형 관성항법장비의 신호에 따라 200피트 고도를 초저공으로 자동 지형추적 비행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무장플랫폼으로서의 면모였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무려 19개의 무장장착소에 11톤의 유도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2차대전 최대의 폭격기 B-

29의 폭탄탑재능력이 고작 9톤이었다는 사실에 비하면 이는 놀라운 능력이다.

이런 F-15E의 실전능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갓 창설된 1개 비행단 24대가 1990년 걸프전에 투입된 스트라이크 이글은 걸프전의 주력 항공 전력으로 스킨 미사일 사냥에 나섰고, 1999년의 코소보 항공전에서 F-15E는 세르비아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 특히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대테러 전쟁에서 F-15E는 다양한 실전기록을 세웠으며, 특히 15.5시간 동안 비행임무를 완수하며 전투기 임무수행시간으로 최장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F-15E의 놀라운 능력은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국 대한민국 공군이 2002년 F-15K를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했고, 2005년에는 싱가포르 공군이 F-15SG를 도입하면서 21세기에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F-15SE, 스텔스가 되고 싶은 이글

2009년 보잉은 이글 시리즈에 종지부를 찍을 놀라운 변형을 선보인다. 바로 F-



미 공군의 F-15D (사진 / USAF)

15SE '사일런트 이글(Silent Eagle)'이다. 보잉에 따르면 F-15SE는 "미래의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첨단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원하는 해외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혁신적으로 설계된 항공기"라고 한다. 요컨대 기존의 스트라이크 이글에 스텔스 성능을 부여하여 21세기의 전장요구에 부합하는 전투기를 고객에게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F-15SE는 우리나라나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기존에 F-15를 운용하면서도 새로운 전투기를 찾는 수요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F-15SE가 기존의 F-15E나 F-15K와 다른 점은 우선 내부무기실의 채용이다. 즉 기존의 FAST 패키지, 즉 내부연료탱크를 개량하여 그 내부에 공대공미사일이나 정밀유도탄 등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내부무기실(Conformal Weapon Bay)을 설치했다. 둘째, F-15SE는 꼬리날개의 각도를 변경하고 기체 표면에 스텔스 도료로 특수처리를 함으로써 레이더 반사면(RCS)을 최소화했다. 한마디로 F-15E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면 F-15SE로도 충분히 초기 제공권 확보를 위한 '스텔스' 임무

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 제작사의 설명이다. 또한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F-15 이글에 기초했으므로, 실전에 투입해도 안전하고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F-15SE 사일런트 이글은 제5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제5세대 전투기는 단순히 초기제공권 확보를 위한 '스텔스' 공격에만 특화된 전투기가 아니라, 적진의 은밀한 정찰이나 전자전 등 다양한 첨단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든 무기체계는 그 국가나 군대가 요구하는 전력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런 제5세대 전투기의 미래 임무영역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F-15SE는 치열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각광받는 유망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F**



제공전투기라는 목표 하나로 만들어진 F-15는 A형이 1972년 최초로 비행한 후 50여년 가깝게 일선을 지키고 있다.

(사진 / USAF)

대한민국공군
대표블로그

공감 공감

SEASON II

WWW.
AFPLAY.KR

공군공감은 공군의 작전훈련과 병영생활모습, 소식을 담은 콘텐츠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군 대표 블로그입니다. 네티즌 눈높이에 맞춰 친숙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이루어져있으며 트위터(@afplay), 앱스토어(공군공감)을 통해서도 공군 공감을 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공군 IN

반세기 만에 돌아온 전설 「빨간마후라」
「빨간마후라」(1964) vs 「레드머플러」(2011)
47년의 세월, “같이 다르게”

영화, 군 그리고 흥행

* 기획특집

본지에서 다루고 있는 「레드머플러」는 영화의 가제로서
제작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모총장 스케치

* AIR FORCE MONTHLY

푸른 하늘을 하얗게 수놓은
8기의 검은 독수리들

* Photo Sketch

이영하 주 레바논 특명전권대사
서면 인터뷰

*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직이 제 1의 지혜

* 생각하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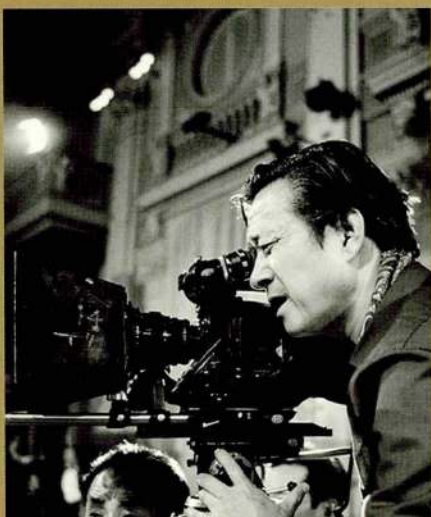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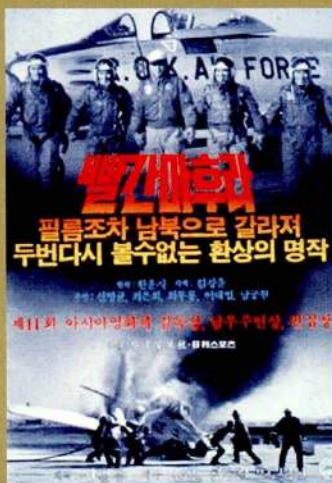
공군 야구 친선 경기 현장 속으로

* Into the Community



대한민국 최초 공중 액션 블록버스터 「레드머플러」 ①

반세기 만에 돌아온 전설 「빨간마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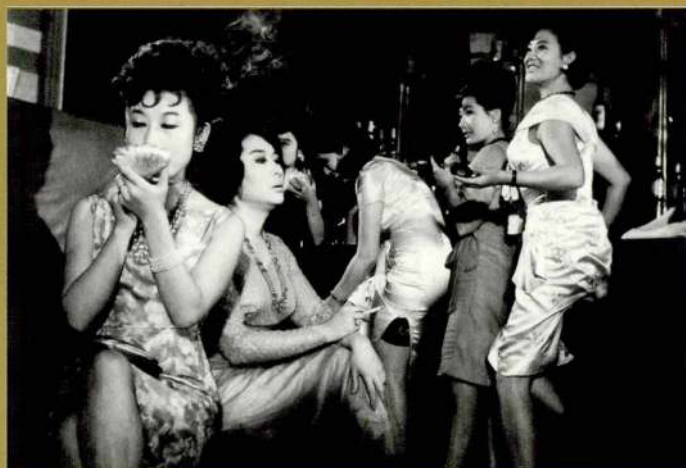




지난 2010년은 6·25전쟁 60주년이었다. 때를 같이하여 많은 수의 전쟁 영화들이 기획되었다. 이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끌었던 것은 「레드머플러」(가제, 이하 「레드머플러」)의 제작 계획이었다. 당초 「빨간마후라 2」 등의 가제로 알려졌던 이 기획은 마침내 1년여의 산고 끝에 2011년 3월 13일 크랭크인했다. 정지훈(가수 비)과 신세경이라는 호화 캐스팅에 유준상, 김성수, 이하나라는 매력적인 배우들을 참여시킨 이 영화는 재작년 「해운대」로 한국형 대작 영화의 방향을 제시했던 CJ엔터테인먼트의 야심작이다. 그런데 다들 원조 「빨간마후라」를 아시나요?

5년 전인 2006년 4월 15일, 한국 영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독이자 제작자였고, 개인적으로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던 고 신상옥 감독의 영결식이 열렸다. 많은 영화계와 문화계 인사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추모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날, 어느 영결식장에서는 볼 수 없는 낯선 광경이 벌어졌다. 그것은 군가 「빨간마후라」를 연주하는 군악대의 모습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씩씩한 군가라니! 물론,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바로 이 군가가 고인의 대표작 「빨간마후라」의 주제가였기 때문이었다.

당대의 흥행 감독 신상옥이 야심작 「빨간마후라」를 개봉한 것은 1964년이었다. 60년대는 한국 영화사에서 르네상스로 불리는 최대의 전성기였다. 70년대 들어 정권의 통제와 검열로 끝나게 되는 이 짧은 황금기 동안 영화인들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재능을 뽐냈고, 관객들은 스크린 속의 화려함을 동경했다. 「빨간마후라」를 제작한 감독의 영화사 “신필름”은 이 찬란한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영화왕국”으로 불릴 만큼 그 위세나 위용이 대단했으며, 매년 화려한 흥행작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여기에 군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이어졌으니 「빨간마후라」는 전대미문의 초호화 영화였던 셈이다. 이에 얽힌 제작 과정에서의 이야기도 흥미진진하다. 항공촬영에서의 경험이나 인프라가 전혀 없던 제작진이 전투기 날개에 직접 카메라를 매달고 비행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엄청난 고가의 카메라가 한순간에 박살날 수도 있는 것은 물론, 이륙 직전에



한번 필름을 돌리면 착륙 시까진 멈출 수 없었다. 물론, 엄청난 양의 필름이 사용되었다. 한 컷의 필름도 비싸서 함부로 쓰지 못하던 시절이었다(사실 필름은 오늘날에도 비싸서 함부로 쓰지 못한다!). 주연배우 신영균이 탄 조종석에 총알이 박히는 장면은 육군 특등사수가 직접 실탄을 쏘는 방식으로 과격하게 촬영되었다는 설날한 이야기도 있다. 이런 일견 무모해 보이는 촬영들은 할리우드 같은 특수 촬영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짜낸 교육지책이었지만, 그 생생함(?)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 영화보다 더 뛰어난 점도 있는 명장면들이 탄생했다.

서울 명보극장에서 개봉된 영화는 곧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관객 수 25만 명, 그해 흥행 1위의 성적이었다. 「빨간마후라」의 흥행은 곧 해외로 이어졌다. 동남아 국가들에서의 인기는 열광적이었고, 여세를 몰아 일본의 극장에서도 「빨간마후라」를 볼 수 있었다. 「빨간마후라」는 쇼치쿠 영화사가 자사 배급망을 통해 일본 전역에서 상영한 최초의 한국 영화였다. 하지만, 영화의 국제적인 인기는 역으로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수출실적에 급급한 판권계약으로 인해 해외에서의 흥행에 비해 벌어들인 돈은 변변치 않았다는 당시 신문 기사도 남아있다. 이 사례는 영화진흥공사에서 해외 직접 배급을 시도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또, 당시에는 영화인들의 인식 부족과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영화 수출시 원본 필름 프린트 자체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당시의 많은 한국 영화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유실되었다. 국내외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빨간마후라」는 그 정도가 심했다. 원본 프린트뿐만 아니라 일반 상영용 프린트, 즉 복사본조차 사라져버린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빨간마후라」를 저열한 화질의 비디오테이프로만 감상할 수 있다. 시네마스코프의 장대한 화면과 선명한 색감 등, 화려함으로 유명했던 신상옥 감독의 전설적인 대표작을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것은 영화 팬들에게 큰 아쉬움이다. 이후 북한에 납북되었다 탈출하게 되는 신상옥 감독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일의 개인 영화 보관소에 「빨간마후라」의 필름이 있었다고 한다. 김정일이 이 영화필름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익히 잘 알려졌듯이 김정일은 소문난 영화광이다. 그런데 「빨간마후라」의 적은 북한군인데, 어라?). 영상자료원이나 오래된 비디오가게에서 어렵게 찾을 수 있는 「빨간마후라」 비디오테이프에 나오는 광고 문구는 바로 이 일화를 나타낸다. 「필름조차 남북으로 갈라져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환상의 명작!

「빨간마후라」가 개봉한 시절은, 또한 정책적인 목적에서의 반공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이기도 했다. 군의 전폭적인 지원(원작 자체가 공군의 청탁으로 쓰였다고 한다¹⁾) 하에 만들어진 대형 전쟁 영화였지만, 놀랍게도 「빨간마후라」는 반공 영화의 전형적인 플롯을 피해 간다. 어떤 의미에서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적」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비극에 대한 대단한 성찰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영화가 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낭만적인 정서이다. 이는 전쟁영화의 한 부류인 「공군영화」로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육군이 나오는, 혹은 해군의 영화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공군이 주인공인 영화들은 전쟁영화 장르에 독특한 인장을 새겼다. 비행기라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즉, 하늘을 난다는 것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 조종사들은 직접적으로 적의 '얼굴'을 보며 싸우는 것이 아니기에 하늘 밑의 처참한 전투에



1) 매일경제 「한운사 인생만유기」 29, 31화분 (1992.10.20/29)



서 묘하게 격리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지상에서는 악명 높은 참호전이 벌어지던 그 시절, 귀족들로 이루어진 공군 에이스들이 유럽 전선의 하늘에서 보여줬던 기사도 정신과 "결투"는 유명한 이야기들이다. 장르의 전통을 이어받아 「빨간마후라」의 주인공들 역시 의리를 지키고 용맹하며, 뜨거운 사랑을 하는 "멋진 남자"들로 묘사된다. 당시 「빨간마후라」를 본 소년들이 공군 조종사를 동경하고, 실제로 공군 지원율이 늘었다는 얘기는 훗날 미국 소년들의 「탐견」에 대한 열광을 떠올리게 한다.

반전영화든 영웅물이든 전쟁의 참상에 집중하기 마련인 다른 전쟁영화들과는 달리, 이 (소) 장르는 오히려 주인공의 로맨스에 집중하는, 멜로 드라마적 성향이 강하다(「풀 메탈 자켓」의 해병대 훈련병들이 도너츠 하나 숨겼다고 단체 기합받을 때, 「탐견」의 예비 파일럿은 애인과 섹스인지 요리인지 모를 유희를 즐긴다). 「빨간마후라」는 그 틀에 충실하다. 사실 60년대에 미망인의 새로운 사랑이라는 영화 속 설정은 다소 급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더군다나 이 설정의 "고전"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새로운 사랑은 결국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 영화의 결말은 다소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전우끼리의 삼각관계와 미망인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라는 전개는 "전쟁 당시의 새로운 풍토"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는 장르 자체의 정형화된 줄거리이기도 하다. 2001년작인 할리우드 영화 「진주만」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빨간마후라」가 할리우드의 장르 영화 규칙에 충실한 영화였다고 하더라도 60년대에 그것을 시도했다는 의미를 간과할 순 없다. 어쨌든 그 사실은 공군 조종사들이 "쿨"한 이미지였다는 것이고, 다양한 장르 영화가 시도되고 사랑받던 한국영화 전성기의 증거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비디오의 문구처럼 이 영화가 "환상의 명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뭐 어때랴.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빨간마후라」는 여전히 멋진 장르 영화이다.

「빨간마후라」는 60년대 한국 영화 전성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이정표와도 같은 작품이기에, 21세기형 블록버스터로 새롭게 만들어질 「레드머플러」는 산업적인 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본다. 이번 작품은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공군 파일럿들의 목숨을 건 작전과 사랑을 다룬 본격적인 현대 공군 전투영화라고 하니, 「빨간마후라」의 리메이크가 아닌 "재창조"라 부를 수 있겠다. 발전된 제작기술과 50년이란 시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고전에 덧씌워지게 될 것인가.

끝으로, 불철주야 조국의 영공을 지키느라 본인의 연애 전선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군인 여러분들께 「빨간마후라」의 명대사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다. AF

"조종사를 좋아하는 년은 미친년일거야."

"뭐? 미친년? 그렇지도 모르지. 그러나 멋진 여자일거야!"



최무룡
나관중 소령의 후배조종사
나중에 지선과 결혼하는 배대봉 대위 역



박 암
엄격하나, 부하들을 따스히 아끼는 강직한 전대장 역



남궁 원
지선의 첫 남편이자, 나관중 소령의 절친한 친구
노도순 대위 역



신영균
영화 「빨간마후라」의 주인공 나관중 소령 역.
호탕하고 활기찬 성격이라 「산돼지」라는 별명이 있다.



최은희
남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깨끗한 여인 지선 역

대한민국 최초 공중 액션 블록버스터 「레드머플러」 ②

「빨간마후라」(1964) vs 「레드머플러」(2011)

47년의 세월, “같되 다르게”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해 말하는 법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부끄러움 없이 말해라.”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 바야르의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뒤에 숨어 이야기를 꺼내본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다들 영화를 보지 않았다. 한 편은 나의 어머니가 여섯 살 때 개봉한 영화고, 다른 한 편은 아직 개봉하지도 않은 영화다. 그렇지만 이야기 해보려 한다. 부끄럼 없이.

47년이 지났지만 같되

초호화 라인업

먼저, 이 두 영화는 당대 최고의 배우가 출연한다. 「빨간마후라」는故 신상옥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한 세대 다음인 필자도 알 만한 신영균, 최은희, 최무룡이라는 톱 배우가 열연했다. 「레드머플러」 역시 설명이 필요 없는 월드스타 정지훈(비)과 「지붕 뚫어버릴」 인기의 신세경을 필두로 〈연애시대〉 〈식객〉의 이하나와 〈풀하우스〉의 김성수, 〈이끼〉 〈하하하〉의 유준상과 〈괴물〉 〈박쥐〉 〈방자전〉의 ‘미친 존재감’ 오달수라는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안 봐도 비디오’, 변하지 않는 사내들의 로망

공군 조종사, 그리고 빨간마후라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저 이 한마디 ‘사나이~ 빨간마후라제!’로 충분하다. 캐스팅이 어쨌든, 구성이 어쨌든, 세월이 아무리 변했든 간에 상관없이, 공군 조종사를 소재로 한다면 그 영화는 볼 것도 없이 빨간마후라의 정신을 다들 수밖에 없다. 조종사는 섬세하면서 강인하고, 열정적이면서 얼음장 같고, 극적이면서 아름답기까지 한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기에.

47년이 지나서 다르게

여풍당당, 여자 주인공들의 역할 변화

「빨간마후라」의 여주인공들은 공군기지 근처 바(Bar)에서 일하는 역할이었지만, 「레드머플러」에 출연하는 신세경은 최신에 전투기에 숨결을 불어넣는 정비사로, 이하나는 그 전투기를 직접 조종하고 적기에 미사일을 조준하는 전투기 조종사로 출연한다. 47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겠지만, 실제 공군의 일선에서 눈



신세경
비행을 사랑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비행의
꿈을 접은 까칠한 정비사 세영 역



김성수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투철한 편대장 대서 역



이하나
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적기 앞에서는 냉정하게
조종간을 잡는 조종사 유진 역



정지훈
탁월한 비행기량을 갖고 있지만 조금은
제멋대로인 조종사 태훈 역



유준상
이성적인 판단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냉철한 조종사로
누구보다 하늘을 사랑하는 편대장 철희 역



정경호
윗사람에게 잘 하고 아랫사람에게 막 하는,
동료들에게 웃음과 비웃음을 동시에 주는
조종사 태봉 역



오달수
세영의 선임 정비사로 겉으로 칠폰이지만 따뜻하게
세영을 배려해주는 민 상사 역



이중석
밝고 활발한 새내기 조종사 석현 역

부시게 활약하는 여군들의 모습을 영화는 그대로 보여줄 예정이다. 어떻게 보면 「레드머플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여배우들의 역할 변화일지도 모른다.

F-86에서 F-15K로

「빨간마후라」에 등장한 전투기는 최초의 제트전투기 세대의 기종인 F-86 세이 버(Sabre). 미 공군이 1949년 최초 도입했고, 우리나라 공군은 1955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했다. 최대속도는 1,100km/h, 최대항속거리는 2,400km, 무장으로 12.7mm 기관포와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한다.

반면, 「레드머플러」에 등장하는 F-15K는 대한민국 공군이 2005년부터 도입했으며, 최대속도는 2,600km/h, 최대항속거리는 5,700km로 독도까지 작전이 가능하다.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Advanced Medium-Range Air-to-Air Missile, AMRAAM)과 가공할 사거리의 SLAM-ER 등을 장착한다. 간단히 말하면, 직접 눈으로 보고 싸우는 전투기에서 눈으로 알아채기 전에 미리 격추하는 전투기로 발전했다.

다르지만 같은 영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영화는 다르다. 「레드머플러」는 「빨간마후라」의 속편도 아니고, 리메이크도 아니며, 두 번째 에피소드도 아니다. 그렇지만 사내들의 로망 '빨간 마후라는 하늘에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라는 공군 조종사를 소재로 다룬다는 점에서 맥을 잇는다 할 수 있다.

「빨간마후라」를 본 세대라면 그 같음과 다른 속에서 변해가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낼 것이고, 나 같은 상큼한 세대들은 그 당시 세대들이 왜 「빨간마후라」에 열광했는지, 왜 사내들의 로망이 「빨간마후라」가 되었는지 어렵게 짐작할 게다.

이제, 「빨간마후라」를 찾아서 봐야겠다. 그리고 기다려야겠다. 올해 말에 있을 「레드머플러」의 개봉을.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011년 영화보다도 더 멋지게 제작될 또 다른 「빨간마후라」를. **AF**

대한민국 최초 공중 액션 블록버스터 「레드머플러」 ③

영화, 군 그리고 흥행



얼마 전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가제는 「레드머플러」. 이 영화는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목숨 건 작전에 나서는 공군 조종사들의 삶과 사랑이 담긴 공중 액션 블록버스터란다. 주인공이 요즘 최고로 주목받는 연예인 정지훈(가수 비)과 신세경이라서 더욱 관심을 끌지 않았나 싶다.

내가 좋아하는 형들 가운데 배우 손병호 씨가 있다.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하면서도 예능프로에 등장해서 '손병호 게임'으로 당시 예능계의 '노장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분이기도 하다. 그도 역시 군을 다룬 영화의 주인공을 했던 적이 있다.

형이 주인공을 했던 영화 「대한민국 1%」는 지난해 5월 개봉했다. 이 영화는 해병대원들의 삶이 주제가 된 영화다. 이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홍보 포인트는 형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인 여배우가 최초의 해병대 여군 부사관으로 등장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판 GI 제인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실제로는 천안함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작업 과정에서 순직한故 한주호 준위의 영웅적이고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진 때라 관심을 더 받았던 것 같다.

이 영화를 연출했던 조영남 감독(그는 영화를 찍은 직후 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은 이 영화를 통해 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지 몰라도 형은 그 영화를 찍으며 무척 고생했단다.

형은 80년도 초반 강원도 화천 15사단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군사령부 문선대로 옮겨 제대했단다. 형의 군 생활은 특이한 사건 없이 평균적이고 평범했다고 한다. 그래서 형은 추상 같은 해병대 수색대 중사 역할을 하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형이 고무보트를 직접 모는 장면이 있었는데 나중에 찍고 나니 손에 싹땀 줄이 다 터졌단다. 생판 몰아보지도 못한 보트를 안전요원도 없고 안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모는데 촬영팀은 더 빨리 달리라고 요구하고 속도를 내자니 사고 날까 무섭고, 그래서 손잡이를 너무 꼭 잡다보니 땀줄이 터졌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프다는 말도 무섭다는 말도 못했다고 한다.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이로 넘버 투였던 형이 불평에 엄살을 떨면 영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영화가 해병대를 다룬 영화여서 더욱 그랬다고 한다.

형은 군을 좋아한다. 군에는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 형이 문선대 공연을 위해 1군사령부 특공연대를 찾았을 때 연대장을 소개했단다. 무대에 올라온 연대장은 간단한 인사말을 마친 뒤 갑자기 '얘들아' 하고 외치더라. 그런데 장병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예, 아버지'였다고 한다. 그러더니 연대장이 갑자기 웃통을 벗더니 '우리 놀아보자'라고 외치더라. 형은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울컥 했다고 한다. 그 연대장에게서 지휘관과 부모, 그리고 형의 모습을 다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생기면 꼭 특공대나 해병대 등 특수부대로 보내리라 다짐했단다.(그런데 형은 지금 딸만 둘이라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지 몰라도 형은 「대한민국 1%」라는 영화가 참 애착이 갔다고 한다. 특수부대에 대한 동경에다 선임자로서 회생하며 후배를 가르치는 역할도 역할이었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 주인공처럼 리더의 마인드가 있을까? 그럴 용기가 있을까?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1%」에 출연한 영화배우 손병호



형은 영화 내용에 해병대의 찐(?)한 훈련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등장인물들의 갈등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가진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 전사가 되는 '경쟁' 이었는데 그 과정이 잘 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고의 인간병기가 되는 과정이 잘 묘사돼야 부대원들의 좌절과 성취, 또 리더의 모습이 잘 설명됐을 텐데 영화 촬영 당시 군의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형의 영화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도와주었는데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네티즌 평가는 별 다섯 개 만점에 세 개 하고 조금 넘는다.

형은 우리나라에서 군을 주제로 한 영화는 단순히 총을 쏘고 보지 못한 무기가 등장하는 눈요기감이 아니고 또 군 당국의 자랑, 홍보를 위해서도 아니라고 한다. 군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 국민의 이야기라고 강변한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이야기며, 여성들한테는 아버지, 오빠, 동생, 아들의 이야기로 우리나라 사람이면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군을 주제로 한 영화는 '한국인이면 거쳐 갔거나 거쳐 갈 삶'을 주제로 한 영화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 전쟁이 있었기에 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우리나라에서 군을 주제로 한 영화는 특별하게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영화가 특별하다고 해서 흥행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영화의 흥행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군을 다룬 영화의 경우 형은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결단-군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극단과의 갈등이 잘 녹아있어야 흥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선과 악의 대결로 규정한다면 선은 인간이고 악은 전쟁 그 자체라고나 할까. 때문에 형은 베트남전에 자원한 병사의 눈을 통해 전쟁에서 인간의 이중성이 빚어내는 갈등을 담은 영화 「플래툰」을 최고의 영화로 꼽는다고 한다.

「레드머플러」의 모델이 된 영화 「빨간마후라」는 1964년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 당시 250만이던 서울 시민 가운데 25만 명이 봤다고 한다(10%라고 하지만 당시 생활수준을 감안한다면 볼 사람들은 거의 다 봤다고 해도 될 듯 싶다.). 이 영화는 사랑과 그 사랑을 뒤로 하고 전쟁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조종사의 삶을 그렸다. 이 영화의 주제가 가사에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사나이 일생을 하늘에 건다'는 구절이 이 영화를 대표하지 않나 싶다.

이 영화는 각종 상을 휩쓸며 작품으로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군이 이 영화로 인해 공군 = 빨간마후라 = 애국심, 헌신, 희생으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얻었다는 게 가장 큰 재산이 됐을 것이다.

공군은 당시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지원을 했을까? 외국의 영화를 보면 영화 속 군은 다양하다. 엄청난 화력으로 군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영화가 있는 반면 왜곡도 있고 또 군에 대한 극도의 반감도 노출된다. 그런 영화를 보면 매번 드는 생각이 '재네들은 어떻게 군을 섬유했을까? 저런 영화에 군이 왜 항공모함을 제공하고 전투기를 지원했을까?' 라는 생각이다. 이번에 공군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레드머플러」가 우리나라 군 영화에 다시 한 번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F**



영화 「레드머플러」팀 접견

참모총장은 3월 9일, 공군 소재 영화인 「레드머플러」의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영화제작사 관계자와 배우(정지훈, 신세경 등) 일행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47년 전 영화 「빨간마후라」는 당시 젊은이들의 로망이었고, 지금까지도 공군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이번 영화를 통해 공군 장병들이 드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명예 공군인이 되어 강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공군총장 접견

참모총장은 3월 21일, 인도네시아 이맘(Imam) 공군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환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공군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공군본부 방문이 한-인니 공군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류증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 공군 물자사령관 접견

참모총장은 3월 9일, 미 공군 물자사령관 호프만(Hoffman) 대장 일행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한·미 공군은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 공군 물자사령부는 FMS를 통하여 한국공군이 필요한 장비, 물자, 기술자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 변화와 항공기술 발전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공군의 군수분야가 될 수 있도록 한·미 공군 군수 분야간 협력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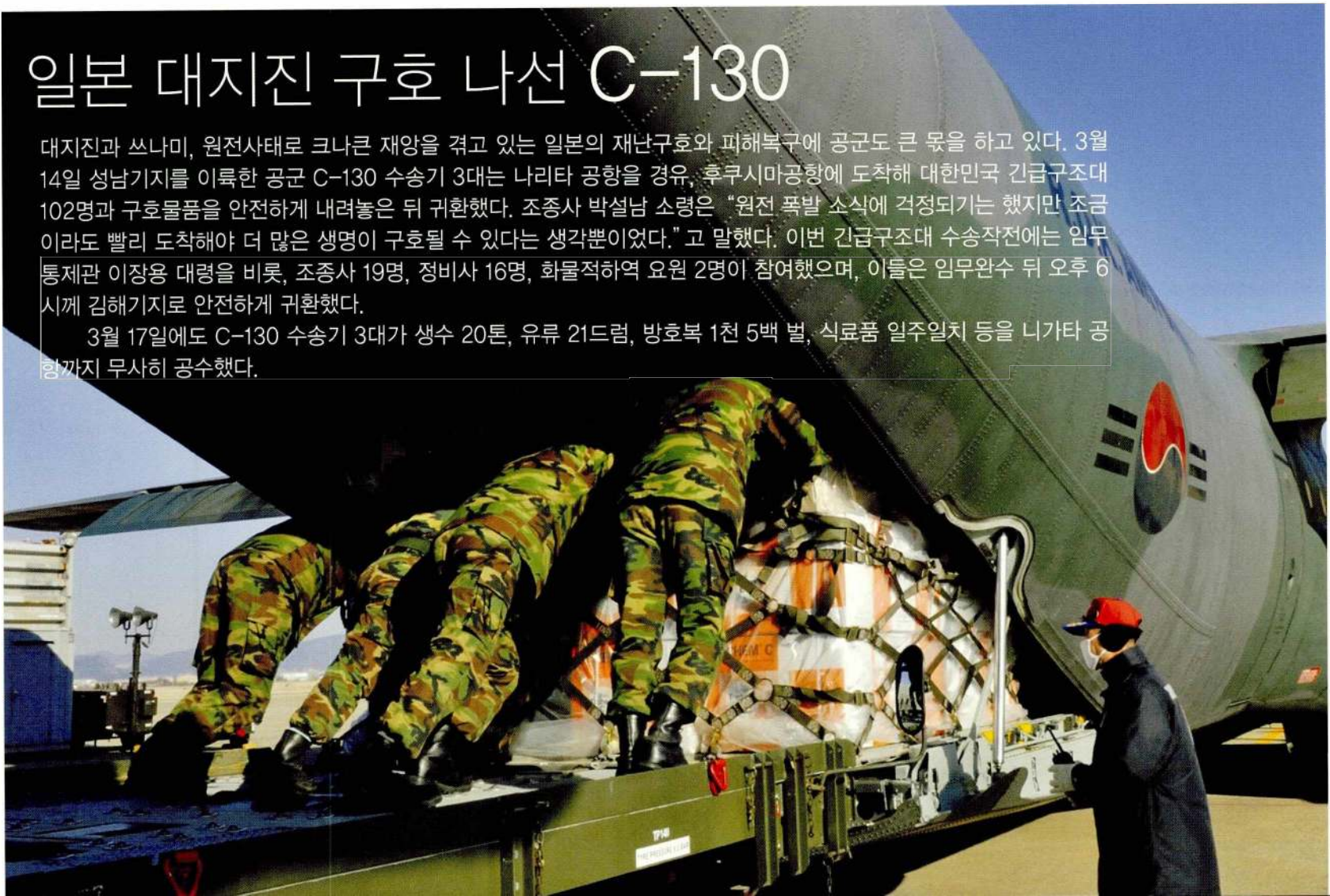
군속 30년 기념회장 수여

참모총장은 3월 16일, 공군본부지역 군속 30년 기념회장 수여식을 주관하고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그동안 군 생활에서 쌓아 온 경륜과 지혜를 발휘해 공군이 강하고 멋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로가 합심해 더욱 정진해 주길 바란다."며, "당나라 이백과 관련된 고사성어 마부위침(磨斧爲針), 즉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의 군 생활은 협력과 배려로 주변을 살피 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 대지진 구호 나선 C-130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사태로 크나큰 재앙을 겪고 있는 일본의 재난구호와 피해복구에 공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3월 14일 성남기지를 이륙한 공군 C-130 수송기 3대는 나리타 공항을 경유, 후쿠시마공항에 도착해 대한민국 긴급구조대 102명과 구호물품을 안전하게 내려놓은 뒤 귀환했다. 조종사 박설남 소령은 “원전 폭발 소식에 걱정되기는 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더 많은 생명이 구호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구조대 수송작전에는 임무 통제관 이장용 대령을 비롯, 조종사 19명, 정비사 16명, 화물적하역 요원 2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임무완수 뒤 오후 6 시께 김해기지로 안전하게 귀환했다.

3월 17일에도 C-130 수송기 3대가 생수 20톤, 유류 21드럼, 방호복 1천 5백 벌, 식료품 일주일치 등을 니가타 공항까지 무사히 공수했다.



한·미 공군 쌍매훈련

한·미 공군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북 군산의 미 공군기지에서 쌍매훈련을 실시했다. 일명 '버디 윈(buddy wing)'으로 불리는 이 훈련은 한·미 공군 조종사들이 평시 전술 및 작전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해 연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훈련 중 하나다.

올해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들과 미 8전투비행단 F-16 전투기들이 출동해 가상의 영공침범에 대한 전술훈련을 펼쳤다. 훈련에 참가한 이정근 소령은 "쌍매훈련은 양국 공군이 서로 기지를 바꿔가며 작전훈련을 하는 것으로 상호 전투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커 소령 역시 "한·미 공군 상호간의 전술과 작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 값진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민항기 이용 美 증원군 전개 훈련

한·미 공군은 2011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참가하는 미 증원군을 민항기를 이용해 전개시키는 훈련을 3월 8일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민항기인 B747 두 대가 투입돼 미군 230명과 군수물자 30톤을 일본 카데나(Kadena) 기지에서 대구기지로 수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같은 훈련은 한·미 상호공수지원 협정(MASA: Mutual Airlift Support Agreement)에 근거한 것으로, 2007년 RSOI(연합전시증원) 연습 시 최초 실시한 이래 올해로 다섯 번째다.

공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주)대한항공과의 전세기 계약을 맺었으며, 관련 정부부처와 통관·출입국심사·검역 등의 절차를 협조했다. 또한 임무 항공기에 동승감독관이 직접 탑승하여 실시간으로 상황파악과 현지상황을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군본부와 제60 수송전대에 수송상황실을 운영하고, 대한항공 종합상황실에 통제관을 파견해 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도 했다.

활주로 피해복구훈련

제91항공시설전대(이하 91전대)는 3월 2일, 제10전투비행단(이하 10전비)과 함께 전시 활주로 피폭으로 발생한 폭파구를 신속히 복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오전 8시, 활주로 피폭상황이 전파되자 91전대 전개 요원과 10전비 시설대대 피해복구 요원이 즉각 피해현장(훈련장)으로 출동했다. 피해 규모를 파악한 요원들은 덤프트럭과 적하역기를 이용해 충전재와 보조기충재를 운반·포설하여 피해구역을 견고하게 다졌다. 토공 작업을 완료한 뒤 마무리 작업으로 접개식 유리섬유 매트인 FFM(Folded Fiberglass Mat)을 가져와 충전재로 다져진 폭파구에 고정하는 것을 끝으로 피폭된 활주로는 정상 오픈됐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두 시간.

이 훈련을 위해 91전대 공병대대는 2월 28일부터 10전비에 전개해 지휘소를 구축하고, 야외막사에서 숙영과 취사를 하며 부대의 피해복구 장비 및 물자를 점검하고 전술토의를 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 훈련이 주목을 끈 점은 비행단에 구축된 와이브로(WiBro) 기반 정보통제 통신망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현장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 즉, 현장지휘관이 PDA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공병대대 지휘소에서 실시간을 확인하면서 현장을 지휘통제한 것이다.



5대 정책중점 추진 평가회의

공군은 3월 11일 성일환 참모차장(사진)을 비롯한 공군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정책중점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대 정책중점' 중 특히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이를 위해 공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임전필승의 정예전투조종사 양성, ▲전투임무 중심의 실전적 부대훈련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위기상황별 비상대기를 세분화하고, 방어진력 위주의 비상대기 개념에서 탈피, 공격대기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격 비상대기전력에 적응개념을 적용하여 더욱 신속하게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적 특작부대의 서북도서 강점 및 내륙 지역 축선별 침투에 대비해서도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합동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임전필승의 정예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개최하는 연합훈련인 맥스썬더(MAX THUNDER) 훈련 중 한축이 주도하는 훈련의 경우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했으며, 미 본토에서 시행하는 레드플래그(RED FLAG)훈련에도 참가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신장하기로 했다. 또한 F-15K와 (K)F-16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미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는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한국공군의 작전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공중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부대별 자체 방호능력이 필수적인 것에 주목, 전투임무중심의 실전적 부대훈련 체계 정립을 통해 기지방어능력을 높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군은 비행단 부대훈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마일즈 장비 등 실전적 전투훈련을 위한 과학화 전투훈련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공군은 천안함 1주기를 맞아 행정소요를 줄이고 전투임무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군본부 주요보직자들이 일선 전투부대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참모차장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군에 부여된 최고의 과제이므로 전 공군인들이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2011년 공군 5대 정책중점

1. 전투형 군대 육성
2. 숙련급 조종사 효율적 관리
3. 국방개혁 추진
4. 긴요전력 확보
5. 갈등관리



F-15K 2차 사업 47, 48호기 도착

F-15K 2차 도입 사업에 따라 F-15K 47호기와 48호기가 3월 14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에 도착했다. F-15K 47호기와 48호기는 3월 9일(수) 새벽 1시(한국 시각 기준)에 미국 세인트루이스를 이륙해, 캘리포니아, 하와이, 괌을 경유하며 약 6일 간에 걸쳐 태평양을 횡단한 후, 14일(월) 12시 27분에 공군 대구기지에 안착했다.

공군은 지난해 9월, F-15K 2차 사업 최초 도입기 3대를 인수한 이래 2012년 3월까지 총 8회로 나누어 21대의 F-15K를 추가 도입한다. 이번에 도착한 2대의 F-15K 항공기는 그 중 3회째에 해당하는 도입분이다. 2차 사업으로 추가 도입되는 F-15K 항공기들은 2012년 3월까지 11전비에서 전력화를 완료하여 정상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구름을 밟고 달린다!" 관제부대·방공포대 산악버스 운영

주로 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 관제부대와 방공포대. 해발 1천미터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한 부대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고산지역에 위치한 부대의 경우 경사가 가파른데다가 겨울이 유난히 길고 폭설, 결빙, 도로유실 등이 잦다. 이 때문에 출퇴근 지원이나 인원/물자 수송은 그야말로 '작전' 그 자체.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부대들을 위해 특수 설계·제작된 산악용 진중버스가 도입돼 수송지원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4륜구동에 32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는 산악용 진중버스는 에어컨,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ABS, 후방감시카메라 등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기존의 간이버스인 '탐차'를 대체할 이 산악용 진중버스는 3월 초 4대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까지 총 30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배재진 생도, 외국인 위탁생도로는 최초로 美 공사 부전대장생도 임명

美 공군사관학교에 위탁 교육 중인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배재진 생도(공사 58기)가 외국인 위탁생도로서는 최초로 부전대장 생도로 임명돼 화제다.

美 공사에서 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배 생도는 2006년 2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제58기로 입학했다가 美 공사 위탁생도로 선발됐다. 2007년 6월 美 공군사관학교 가입교 훈련을 시작으로 현재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며, 1월 2일부터 부전대장 생도로 임명되어 졸업식이 예정된 5월 25일까지 근무하게 됐다. 배 생도는 인천고등학교 105회 총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하다.

배 생도가 맡게 된 美 공사 부전대장 생도는 생도대령급 직책으로, 생도대 지휘근무 중 두 번째 서열에 해당하며 4개 대대 40개 중대 4,500여 명의 생도를 지휘하는 매우 명예로운 자리. 생도전대의 근무생도는 학업뿐만 아니라 체육, 군사훈련, 리더십 및 생도생활에 가장 모범적인 생도로 추천된 자 중 학교 지휘부에서 선발한다. 美 공사의 국제교환프로그램(DFIP)에 따르면, 美 공사 역사상 외국인 위탁교육생도가 부전대장 생도에 임명된 예는 배 생도가 처음이다.

배 생도는 지난 학기부터 KARS(Korean American Relation Seminar)라는 이름의 한·미관계모임을 결성하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주말에 김밥,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는 등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는 생도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 생도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항상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배 생도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에서 약 1년 4개월 간 생도생활하면서 몸에 배인 습관이 美 공사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언어나 여러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움츠러들기보다는 항상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던 것이 부전대장 생도로 선발되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전했다.



‘하루 두 번 사람 살린’ 공군 구조헬기

백령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두 명이 잇따라 공군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공군 제6탐색구조전대(이하 6전대)는 3월 16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 30분 각각 HH-60 헬기 한 대와 구조팀을 긴급 출동시켜 응급환자를 긴급 후송했다. 오전 10시에 후송된 환자는 위장 출혈로 의식이 혼미하고 토혈 증상까지 보인 박 모 할머니(92세). 구조사 박용근 원사(42세)와 신성한 하사(27세)는 후송 중인 1시간 동안 환자의 입 안 이물질을 계속 제거하는 등 환자가 원활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같은 날 6시 30분에도 체장암 환자인 장 모 할머니(83세)를 안전하게 후송했다. 이때 역시 박 원사와 신 하사가 헬기 내 응급조치를 취했다. 두 환자 모두 인하대병원에서 인계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원사는 “구조사 생활 동안 하루에 두 번이나 출동해 환자를 후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태게 되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6전대는 공군 유일의 탐색구조비행전대로 서북 5개 도서지역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 출동해 환자를 후송하는 임무 역시 수행해 왔다. 2010년에도 23명의 환자를 긴급후송해 생명을 살렸다. 금년 들어서는 이날 두 번을 포함해 4번의 긴급후송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훈련 현장 푸른 하늘을 하얗게 수놓은 8기의 검은 독수리들

대한민국 국가대표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푸른 하늘을 수놓는 모습이 3월 16일 카메라 렌즈에 포착되었다. 이들은 4월 9일 제주대회를 시작으로 약 두 달 동안 진행될 2011 스페이스 챌린지 예선과 본선 행사때 멋진 기동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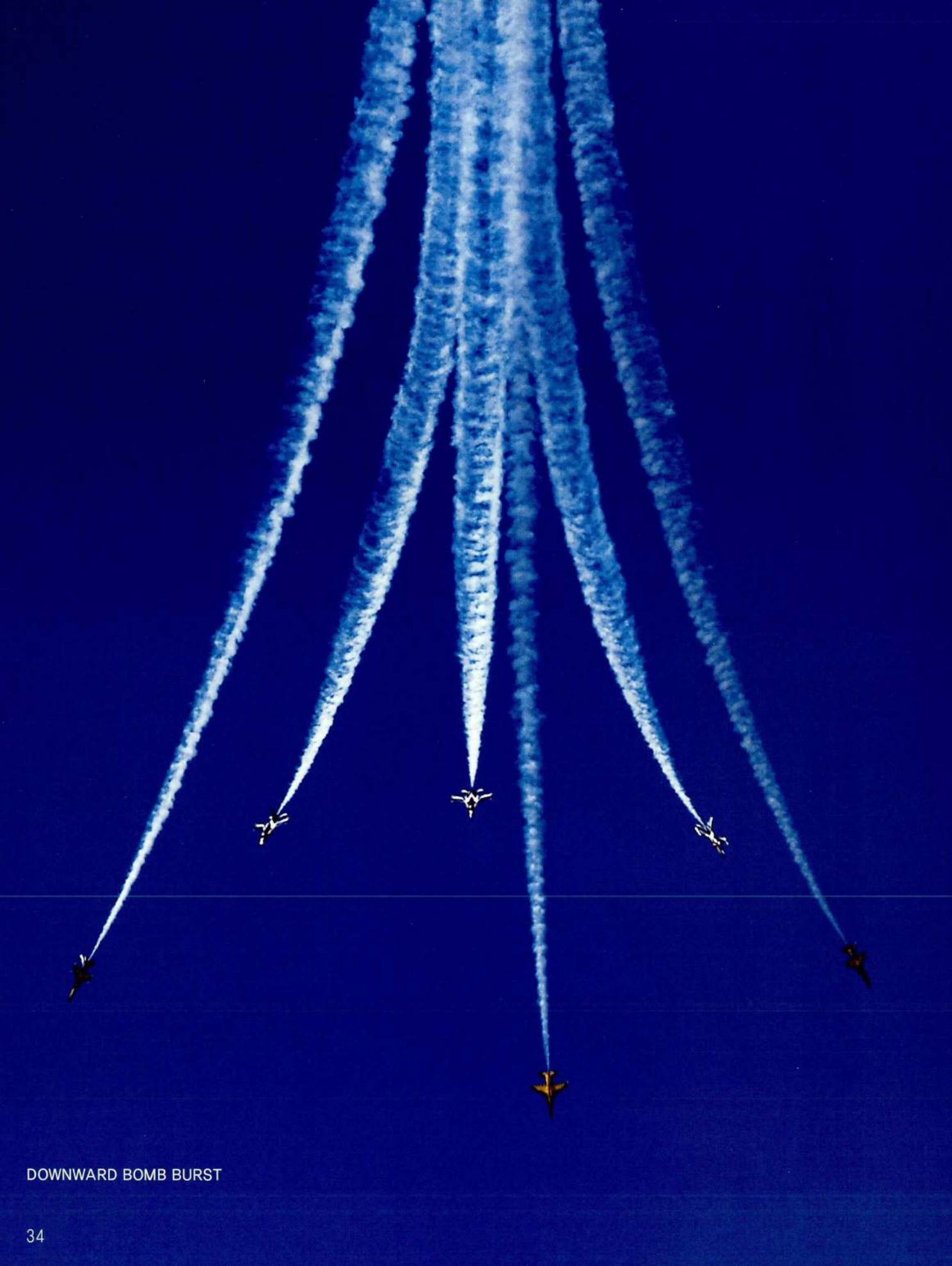
PITCH UP LANDING



SCREW RO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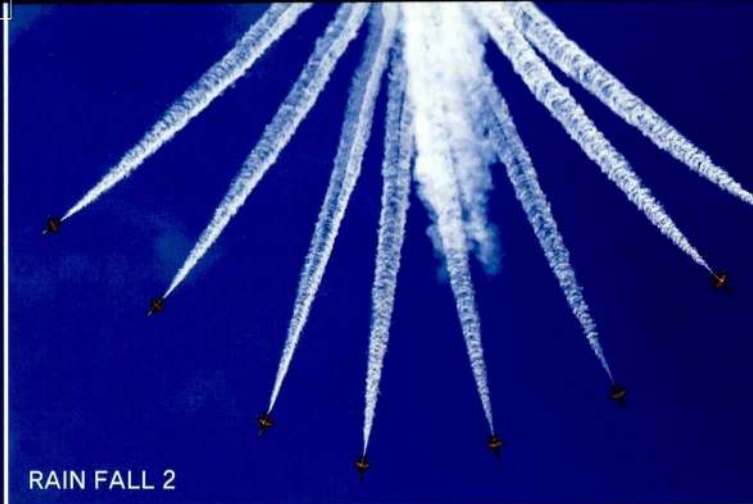




DOWNWARD BOMB BURST



RAIN FALL 1



RAIN FALL 2



EAGLE 대형 2



DIZZYING BREAK

[이영하 주 레바논 특명전권대사 서면 인터뷰]

“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입니다.
세계인을 꿈꾸는 공군인들이
더 높게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부대가 있다. 바로, 레바논 남부 티르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수행 중인 ‘동명부대’를 일컫는 이야기이다. 성공적인 현지 활동을 인정받아, 유엔에서 성공적인 임무완수와 업적을 치하하는 ‘유엔 메달’도 수여받았다. 라우디아 그라치아노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은 수상식에서 동명부대의 뛰어난 활약상에 대해 극찬했다. 더욱 임무에 매진해, 유엔군의 모범이 돼달라고도 덧붙였다. 동명부대가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 속에서 발로 직접 뛰는 외교첨병임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이 기쁜 순간, 수상식장 뒤에는 눈시울을 붉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2009년 주 레바논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받고, 한국과 레바논 양국관계를 위해 직접 발로 뚫은 그였기에 이날의 눈물은 뜨거운 의미가 있었다. 레바논에 휘날리는 태극기와 우리 장병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감성적인 그는 동명부대의 활약상을 그려내,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종합 문예지 <문예춘추>에 당당히 입상한 수필가이기도 하다. 더구나 놀라운 건, 그가 전직 전투기 조종사이자, 공군 예비역 중장이라는 사실. 머나먼 중동의 타국에서도 따스하고도 감성적인 수필편지로 한국을 늘 그리워하는 그를 월간 「공군」이 서면 인터뷰했다.

Q. 우선, 월간 「공군」 독자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주 레바논 대사인 이영하라고 합니다. 1951년 전남 광주에서 출생했으니, 올해 환갑을 맞는군요. 1974년도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로서 국가방위와 공군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명예로운 일이지요. 2007년 8월에 3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사관학교 기간까지 포함하면 37년 정도 군 생활을 했군요.

위관장고 시절에는 전투비행대대에서 최일선 전투조종사로 있었어요. 제게 주어진 영공방위 임무에 충실했었죠. 최선을 다했던 시절이죠. 영관 장교시절에는 주 독일대사관 무관부와 공군본부 항공사업부 사업관리처, 참모총장 정책보좌실, 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공중작전과 등의 주요 정보작전부서와 전략정책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항공 전략전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작전사령부 작전처에서 근무할 때는 '88서울올림픽'의 축하비행과 오륜기 비행을 위한 계획통제장교로 임명되어, 개막식에서 정확하고 정교한 축하비행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줬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서울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때문에 보국훈장 삼일장도 수상했었습니다.

2002년, 소장으로 진급한 후에는 초대 남부전투사령관으로 부임했었어요. 이 때 F-15전투기와 T-50국산훈련기 전력화에 많은 노력을 쏟았죠. 그 후,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으로 부임해 공군 정보작전능력 향상과 첨단 무기체계 도입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Q. 공군에서 참모차장, 교육사령관 등의 주요한 보직들을 역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2005년, 제가 중장으로 진급했었어요. 공군교육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있었습니까. 그때 임관했었다면, 저를 낳을 수도 있었겠네요(웃음). 이때, 사령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훈련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표였지요. 그래서 전군에서 최초로 6시그마 경영기법을 도입했어요. 고객 만

족도 관점의 교육 훈련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33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개선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때 우수과제의 경우 공군본부와 국방부에 보고됐었어요. 또한 5대 핵심가치(SMART 정신)를 설정하고, 문화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했었습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이때 교육사령부의 교육훈련 및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제고된 것 같아요.

참모차장으로 재직 시에는 공군본부 부·실·단이 상호 협조하여 공군이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신뢰받고 매력 있는 공군상 정립을 위해 자원봉사도 많이 했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활성화시켰습니다. 불행 이글스의 기종변경 추진도 제가 했었네요.

특히, 지휘관(비행대대장, 비행전대장, 비행단장, 남부전투사령관, 교육사령관) 보임시절 창의적인 인간관리 기법을 도입해 부대원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단 한 건의 비행기 중사고가 없었어요. 그걸 늘 긍지와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죠.

Q. 올해가 한국과 레바논 30주년 수교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또한 레바논과의 30주년 수교의 의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A. 1981년 2월 12일 레바논과 수교했으니까, 올해로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었네요. 사실 1969년 2월 베이루트에 무역 대표부를 설치했었는데, '75년 레바논 내전이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군요.

레바논은 중동의 스위스라고 부를 만큼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고 있어요. 수도 베이루트는 한때 중동의 파리로서 금융, 관광 등의 중심지였지요. 종교도 다양합니다. 18개에 이르는 다양한 종파의 사람들이 현재 공존하고 있으며, 고대 페니키아 문명의 후예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레바논 출신들이 약 1천 5백만 가량이 있지요. 레바논은 규모는 조금 작지만, 고급인력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볼 수 있지요.

등 단 장

이 명: 이 영 하
 등단작품명: 東明部隊, 오늘도 레바논에
 장 르: 현대수필 평화로심는다.
 (외)

귀하는 계간 문예춘추 문학상 심사위원회
 에서 엄선한 신인상 수상자로서 정식으로
 한국문단에 등단하였기에 본 장을 수여함

부가: 이 장을 받는 즉시 《한국문예춘추문학협회》 당연치 회원의 자
 격이 주어지고 향후 1년이 경과한 후에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추천
 받을 수 있으며 향후 1년을 경과 후 재사가 있을 시 국제백문협 한국
 본부 공회원으로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문학 활동을 꾸준히
 할 경우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목필문예보존회
 계간「文藝春秋」
 대표고문 황 금 찬
 발행대표 이 양 우



└, 문예춘추를 통해 수필가로 등단한 이영하 대사

└, 피니시아 호텔에서 각국 대사와 함께



◀, 유엔 메달 퍼레이드를 다 마치고 나서 대사관 직원과 동명부대 주요 참모간의 합동 기념 촬영

올해는 레바논과 수교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수교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교기념일인 지난 2월 12일에는 양국 대통령 간에 수교기념 축하 메시지를 상호 교환했지요. 그리고 우리 대사관은 수교기념행사를 연중으로 실시해, 한국과 레바논 양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올해 다양한 문화, 학술, 체육행사 개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예술단 공연, 사진전시회, 한국영화제, 우리 농식품 홍보행사, 대사배 태권도 대회 및 태권도 시범 공연, 그리고 학술 및 경제통상 협력 세미나 등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대사님께서 주 레바논대사로서 부임하신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A. 우선은 한국과 레바논 국민과의 상호 인식을 제고하고,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올해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민간 상호 인식 제고를 위해서 레바논 신문, 잡지,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레바논 국민에게 널리 알리려 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작년에 레바논 유수의 방송국인 LBC 기자를 외교부의 언론인 방한 프로그램에 초청했는데, 거자가 한국에 아주 매료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베이루트에서 개최한 제3차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개막식'의 사회를 자처하기도 했었죠. 또한, LBC의 특별 대담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가급적 우리나라 언론에 기고활동 및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레바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국군방송, 국방일보 등에서도 레바논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전해주었죠. 한편, 이전에는 양국 간에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이 존재하고 있어,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외교관/관용 사증(visa)면제 협정, 문화 협정, 그리고 환경협력 양해각서 등의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레바논 친선협회의 재창립을 통해 회원 확대 및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레바논 국회가 한-레바논 의원 친선협회를 작년 9월에 창설한 고무적인 일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레바논 남부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동명부대의 안정적 주둔을 뒀을 수 없죠. 동명부대는 레바논 남부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2007년 파병되어 활동을 개시한 이래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외교장관 등 레바논 각계로부터 찬사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가슴에서 우리나라오는 봉사과 지원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죠. 동명부



◀, 베이루트 국제 마라톤 대회 릴레이부문에 참석한 이영하 대사(좌로부터 벨기에 대사, 루마니아 대사, 이영하 대사, 레바논 코치 맥심샤야, 체코대사)

대는 본연의 평화유지업무 외에도 의료기기 전달, 도로 포장 공사, 태권도 및 컴퓨터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주민 숙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레바논 현지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동명부대를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으며,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롤 모델이라고 극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동명부대의 활동은 양국간 관계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레바논 정부 관리나 경제인, 정치인 등을 만날 때 동명부대는 대화의 주요 화제였고, 이러한 점에서 동명부대의 활동은 레바논 내 한국의 이미지 고양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Q. 레바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예전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고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즘 대한민국의 인식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기아, 현대가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였으며, 삼성, LG 제품은 레바논 국민들 간에는 고급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2006년 헤즈볼라-이스라엘 전쟁이후, 복구사업으로 600만 불에 달하는 무상원조 지원 사업을 벌였는데, 2009년에 북동부 브리텔에 고등학교를 건설한데 이어 작년에는 남부 테브닌에 4개 각급 학교를 건설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의 기술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죠. 최근 철수했습니다만, 2006년부터 5년간 한국전력에서 레바논 내 2개의 발전소를 운영, 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양국 간 교역량은 작년 3억 불을 넘어서 5년 만에 3배로 확대되었고, 2010~11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레바논과의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최근 예멘,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에 민주화 바람이 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중동 민주화 열풍이라는 말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중동국가에는 아직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재 장기 집권 공화제 국가들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를 통제해 왔죠. 또한 이슬람 왕정국가들도 서구식 입헌 왕정의 개념과는 달리 종교적 기반에 따라 시혜적인 정치를 행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다수 국가에서 언론 집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청년층과 여성들은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의



↳ 2010년 10월 30일, 동명부대장 이취임 행사에서 축하 케익을 절단 중인 모습(신임부대장 김태업 대령, 레바논 남부사령관, 이영하 대사,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소속 서부 여단장, 이임부대장 김명중 대령)

제약에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인부 격차 등 경제적 요인도 또 다른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중동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최근 레바논의 현황과 정세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A. 레바논은 중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 정치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언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다른 지역 내 국가와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화정이며 장기 집권 중인 국가원수가 없고, 권력도 종파에 따라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세력 견제가 가능한 것이죠.

레바논에서는 지난 1월 12일 헤즈볼라 등 3.8 동맹 소속 각료들의 집단 사퇴로 사야드 하리리 거국내각이 붕괴됐어요. 이후 총리로 지명된 나집 미카티씨가 신내각을 구성 중에 있으나 내각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불법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가 2006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렀고, 2008년에는 내전에 연루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여건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상황이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죠. 최근 종파별 권력 배분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레바논 국민 일반의 종파주의를 타파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Q. 북한도 중동처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80년대 말 동구의 민주화 바람이 아주 제한적이지만, 중동 및 여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중동 민주화 움직임은 북한으로도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동 민주화 바람이 여타 지역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북한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중동 민주화 움직임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북한은 40년 이상의 세습 장기 독재 정권인 시리아와 유사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시리아도 최근 중동 민주화 움직임에 직면하여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접속 금지 해제, 각종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다소 민심을 아우르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북한은 체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식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북한 사회가 점진적인 개방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민주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0년 11월 중, 대사주최 관저 격려오찬 실시 후 동명부대원들과 관저입구에서 기념 촬영

Q. 공군이 중동평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위해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세계평화는 각각의 지역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분쟁 지역에 동명부대와 같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은 세계평화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고 봐요. 아울러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세계평화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유지가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한다면, 남북 간의 첨예한 대치 상황에서 현대전의 선봉이라 할 공군의 역할은 자명해지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 공군의 정진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Q. 대사님처럼 세계인을 꿈꾸는 공군인을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A. 공군에 있으면서 80년대 초반에 주 독일대사관 무관 보좌관을 치낸 적은 있습니다만, 전역 후 재외공관장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군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있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이었죠. 위관급 장교였을 때는 영관급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면서 자신을 계발하였고, 영관급 장교였을 때는 장차 장성이 되었을 때의 자신을 그려보면서 준비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전역 이후에도 조직 경영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직위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Q. 마지막으로 월간 「공군」 독자들을 위해서, 한 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제가 군에 있을 때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하고 되새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것이 많아요.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주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어느 하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노력 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1년에 백 번의 작심삼일을 하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점에서 저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점, 잊지 마십시오. **AF**

정직이 제 1의 지혜



뛰어난 지혜와 자비로운 인품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 덕에 백성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왕에게는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은 양자를 들이기로 결심하고 전국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특이하게도 왕은 전국의 남자 아이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고, 한 달 뒤에 이 씨앗을 틔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씨앗을 받은 아이들은 밤낮으로 정성껏 물을 주고 비료도 뿌리고, 흙을 바꿔 주면서 자신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한 달이 지나 양자를 뽑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고운 옷을 차려 입은 수많은 소년들이 꽃이 활짝 핀 화분을 들고 왕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왕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초라하게 빈 화분을 들고 있는 한 소년이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왕은 그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다른 아이들처럼 꽃을 피우지 못했니?” 소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꽃씨를 돌보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네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 먹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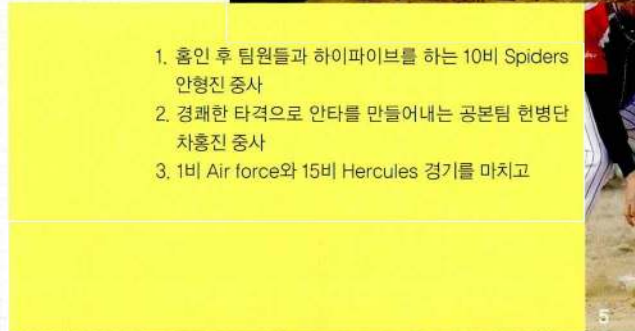
소년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왕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양자이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송이의 꽃도 피우지 못한 소년을 양자로 삼는 게 말이 됩니까? 왕은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그러자 왕은 따끔하게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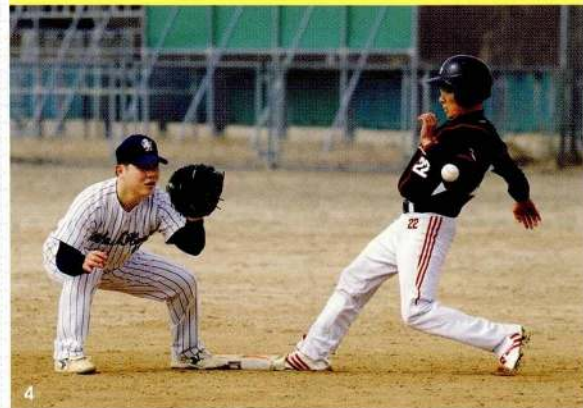
“속인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내가 나눠 준 꽃씨는 삶은 것이라 절대로 꽃이 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꽃은 왜 활짝 피어 있습니까? 모두 다른 씨앗을 썼다는 뜻이 아닙니까?” 알뜰한 속임수가 들뜬 난 사람들은 왕의 꾸지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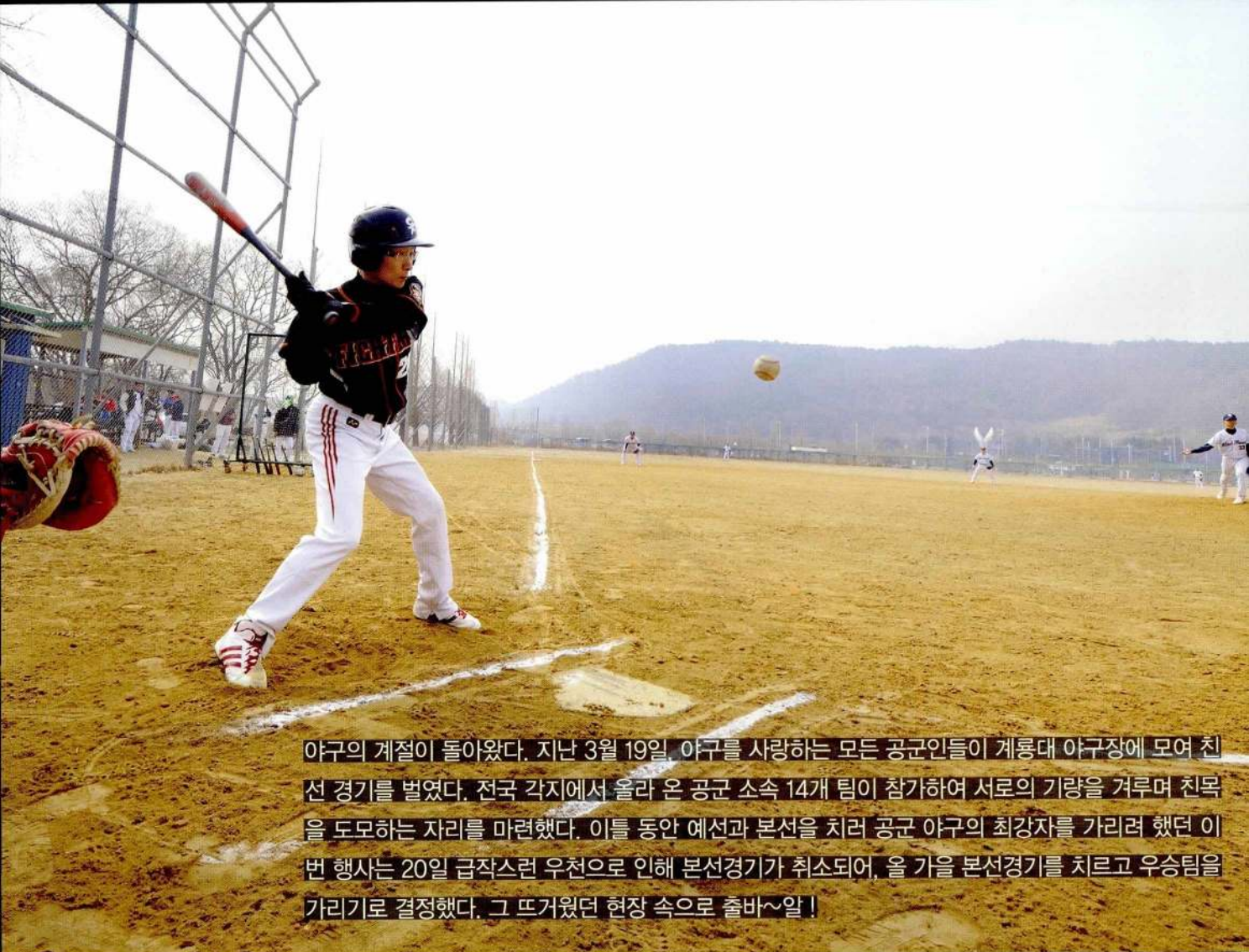
플레이 볼!!!

공군 야구 친선 경기 현장 속으로



1. 휴인 후 팀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10비 Spiders 안형진 중사
2. 경쾌한 타격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공본팀 헌병단 차홍진 중사
3. 1비 Air force와 15비 Hercules 경기를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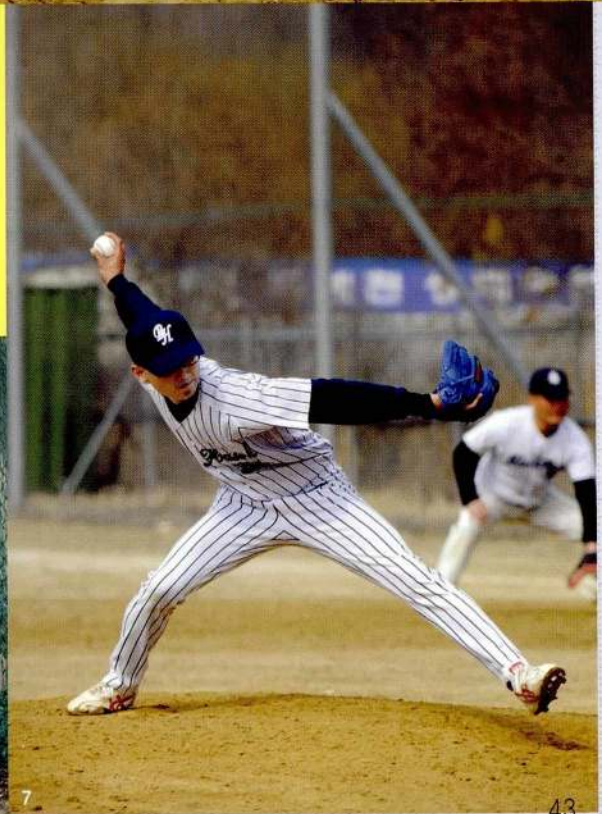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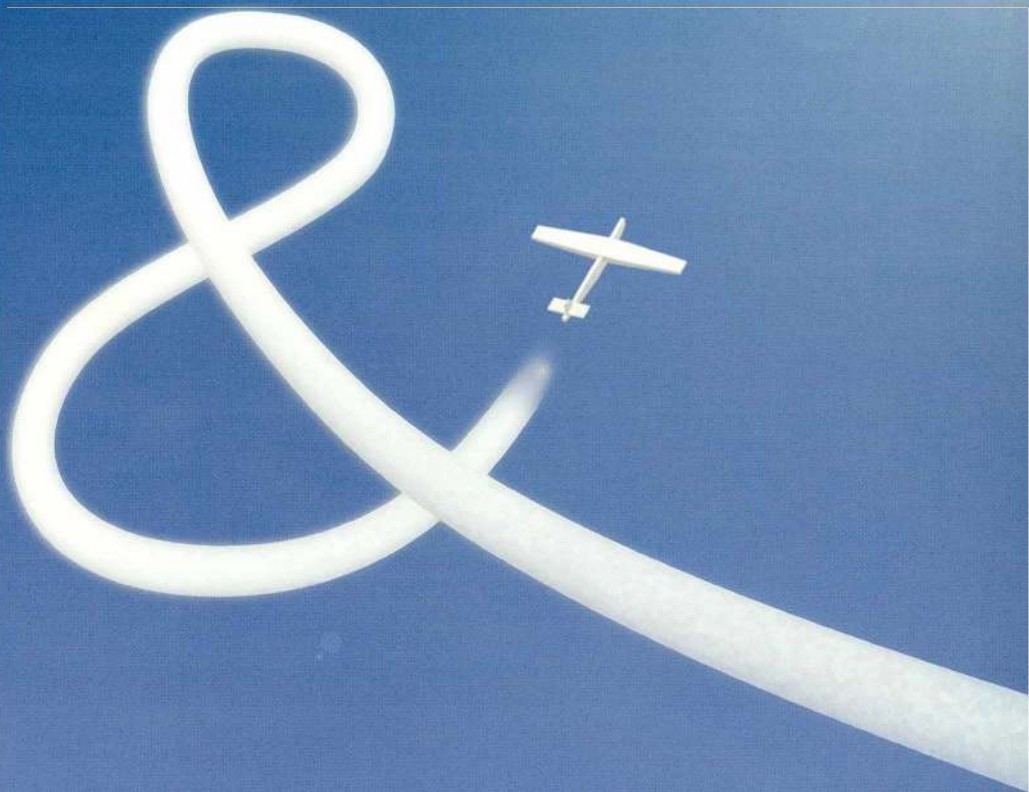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3월 19일,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공군인들이 계룡대 야구장에 모여 친선 경기를 벌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 온 공군 소속 14개 팀이 참가하여 서로의 기량을 겨루며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 동안 예선과 본선을 치러 공군 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려 했던 이번 행사는 20일 급작스런 우천으로 인해 본선경기가 취소되어, 올 가을 본선경기를 치르고 우승팀을 가리기로 결정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출발~알!



4. 훔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 2루 도루에 성공한 성무 Fighters
이장규 상사와 유격수 16비 Black Hawks 정영윤 중사
5. 3루 도루를 시도하는 15비 HERCULES 유동혁 중사
6. 아빠! 나 좀 봐주세요~
7. 유연한 자세로 역투 중인 16비 Black Hawks 손경수 중사





하늘을 향한 동심은 끝없어...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

<http://www.yfk.or.kr>



culture 36.5

토르-천둥의 신

* Hollywood English

투란도트,

그 치명적인 냉혹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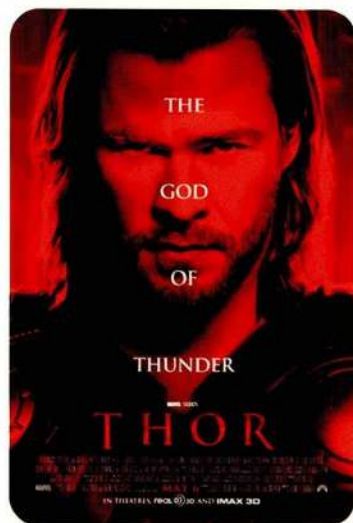
* 인생은 아름다워

베를린 국립미술관

* Behind the Canvas

4월의 문화행사

* Preview



이미도 작가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midomiho>

세익스피어 전문가 캐네스 브래너의 대작 탄생

15세기 초 영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술집에서 코가 비뚤어질 만큼 호방하게 술을 즐겼고, 강도 무리들과 어울리다가 옥살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할'이란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 그의 정체는 놀랍게도 황태자입니다. 후일 왕좌에 오른 그는 영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성군이 됩니다. 그는 '헨리 5세'입니다. 그를 영웅으로 만든 건 프랑스와 치른 아쟁쿠르 전투(1415)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5천 명의 병사로 6만 명의 대군을 무찌른 역사적인 전쟁이지요.

정사와 야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듯이 헨리 5세야말로 매우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불후의 희곡 <헨리 5세>를 썼고,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 연극과 영화로 사랑받고 있지요.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캐네스 브래너도 1989년 극영화 <헨리 5세 Henry 5>를 만들어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그에게 이번에 초대형 극영화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천둥의 신'이라는 부제를 단 영화 <토르 Thor>입니다.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의 만화가 원작인 액션 어드벤처이지요. 그렇다면 <아이언 맨>, <스파이더 맨>, <X-맨> 등의 산실인 마블 코믹스는 어떤 이유로 캐네스 브래너에게 <토르> 프로젝트를 맡긴 걸까요?

스크린에서 부활하는 천둥의 신 토르의 서사극

<토르 : 천둥의 신>은 신들의 세계와 인간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서사극입니다. 북구 신화에 따르면 우주에는 '세계수(Worlds Tree)'가 존재합니다. 물푸레나무인 이 세계수는 북구 언어로 위그드라실(Yggdrasil)입니다. 이 나무에 의해 하늘 개의 세계가 연결돼 있는데, 그 중 신들의 세계인 아스가드(Asgard)와 모든 걸 얼려버리는 프로스트 자이언트(Frost Giants)의 세계인 요툰헤임(Jotunheim), 그리고 인간의 세계가 <토르 : 천둥의 신>의 주요 무대로 등장합니다. 절대신이자 모든 신의 아버지(Allfather)이고 전투의 신인 애꾸눈 오딘(Odin, 앤써니 홉킨스)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토르(크리스 햄스워스)는 의협심이 강하지만 성격이 급합니다. 반면 동생 로키(Loki, 톰 히들스턴)는 신중하지만 의심이 많습니다. 영화는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에서 오딘이 토르에게 왕권을 넘기려는 축제의 날 프로스트 자이언트들이 침입해오는 장면을 보여주며 영화를 본래도에 올려놓습니다. 응징의 조치로 토르는 3층사 동지를 이끌고 요툰헤임에 쳐들어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적에게 포위되고, 때마침 극적으로 나타난 오딘에 의해 목숨을 구합니다.

토르의 추방과 로키의 야심

분을 삭이지 못하는 토르는 언제나 요툰헤임에 다시 쳐들어가 응징하겠노라 버립니다. 그러나 우주의 평화를 원하는 오딘은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방탕한 토르를 추방합니다. 신의 파위를 박탈당한 토르가 떨어진 곳은 미국의 뉴멕시코 사막. 때마침 천체를 관찰하던 천체물리학자 제인(나탈리 포트만)에게 토르의 존재가 발견됩니다. 정부의 비밀요원들도 토르가 추락할 때 만든 분화구에 출동합니다. 정체불명의 물체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토르에게 전지전능한 힘을 주는 쇠망치 몰니르(Myolnir)입니다. 토르는 자신의 무기를 회수하려 하지만 해머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제야 추방당한 처지를 깨달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습니다. 한편 로키는 자신이 오딘의 혈통이 아님을 우연히 깨닫게 됩니다. 프로스트 자이언트들이 아스가드의 신전에 침입한 것도 로키의 배경과 무관해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로키는 왜 아스가드를 호시탐탐 노리는 프로스트 자이언트를 끌어들이는 걸까요? 이 부분은 스포일러여서 가려둡니다. 로키는 오딘에게 찾아가 몰아붙입니다. 자기의 출생배경을 낱알이 알려달라며! 오딘은 모든 진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도 스포일러여서 가려둡니다. 아뵘싸, 노쇠한 오딘이 충격으로 실신한 뒤 언제 깨어날지 모를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디스트로이어(Destroyer)와 토르의 전투

천체물리학자 제인에게 토르는 모든 게 의문투성이입니다. 신화이나 나올 법한 황당한 얘기를 늘어놓으니까요. 제인은 정신병자가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토르에게 차츰 끌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무렵 제인을 더욱 놀라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고대 전투복으로 무장한 세 명의 전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토르의 삼총사입니다. 그런데 재회의 기쁨도 잠깐, 그들에게 아스가드의 디스트로이어(Destroyer)도 나타납니다. 왕의 명령만 따르는 거대한 로봇 전사 디스트로이어가 나타난 이유는 토르와 삼총사를 제거하기 위한 것! 믿기 싫었지만 그제야 토르는 로키의 음모를 간파합니다. 마침내 토르와 디스트로이어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의 무기인 몰니르가 없는 토르는 대패하여 숨이 멎습니다. 과연 토르의 운명은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때 '눈을 감고도 모든 걸 볼 수 있고,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오딘이 무의식 상태에서 이렇게 주문을 외칩니다. "누구든 '자격을 가진 자'가 이 해머를 손에 넣으면 토르의 전지전능한 파위를 얻게 되리라(Whoever holds this hammer, if he is worthy, shall possess this power of Thor)."

새 영웅담을 이끌 새로운 슈퍼히어로의 탄생

오딘의 뜻처럼 지구의 무고한 사람들과 평화를 지켜주려 한 토르의 인류애가 해머에게 전해진 걸까요, 아니면 영웅 토르의 참모습이 오딘에게 읽힌 걸까요. 천둥소리를 내고 번개를 치더니 하늘로 솟구친 몰니르가 토르의 손에 들어갑니다. 토르가 눈을 뜹니다. 저는 블록버스터 <토르> 프로젝트가 셰익스피어 전문가인 캐네스 브래너에게 낙점된 것을 여간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르의 캐릭터가 헨리 5세와 층층이, 켜켜이 다각도로 닮아있기도 하지만 볼거리 위주의 단순한 오락영화가 아니라 새 슈퍼히어로의 위대한 활약을 그린 밀도 깊은 영웅담을 그가 탄생시켰으니까요. 4월 말에 개봉하는 <토르>의 진면목을, 그리고 <토르> 시리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손꼽아 기다려 보고 싶습니다. AF





베를린 국립미술관

베를린 국립미술관은 베를린 중심에 있는 쿨투어포럼 안에 자리잡고 있다. 개관 당시 국립미술관은 독일 왕실의 위세를 과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연합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미술품들을 독일 각지로 분산시켰다. 그때 분산되었던 미술품들을 토대로 서베를린에서는 달렘 미술관으로, 동베를린에서는 보데 미술관으로 개관한다. 이후 통일되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베를린 국립미술관으로 새롭게 개관하게 된 것이다.

베를린 국립미술관은 13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독일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거장들의 작품들을 총망라하고 있어, 유럽 미술의 발전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규모는 큰 전시실이 18개이며 크기가 조금 작은 전시실이 54개나 된다.

베를린 국립미술관은 특히 독일 출신의 거장들의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대표적인 화가로 손꼽는 작품이 한스 홀바인 2세(1497~1543)의 <게오르크 기체의 초상>이다. 상인 게오르크 기체의 사무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당시 중산층의 신분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 미술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물실 안에는 북 모양의 탁상시계 같은 사치품, 그리고 깃펜, 봉인 달린 양피지, 인장, 동전, 가위, 금, 저울, 열쇠, 장부 등 실용품들이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물건들은 투명한 거래가 생명인 젊은 상인의 직업과 성향을 알려주고 있다. 탁자 위에 있는 꽃병에 담긴 카네이션과 로즈메리, 우슬초, 노란 겨자 꽃다발은 사랑과 정절, 순수와 검소를 가리키고, 피었다가 곧 시들 꽃은 삶을 경솔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을 상징한다.

이 작품에서 시곗바늘은 12시와 1시 사이 정오를 가리킨다. 이 작품에서 시계는 신용을, 유리병은 투명한 거래를 상징한다. 기체가 들고 있는 편지봉투에는 기체의 이름과 상호, 런던 주소, 날짜,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기체의 머리 위의 쪽지에는 '이 그림은 게오르크 기체의 얼굴과 외모의 모습이다. 눈빛과 뺨이 생생하지 않은가. 서기 1532년 그의 나이 34세.' 라틴어로 인물을 설명하고 있다.



〈게오르크 기체의 초상〉
1532년, 나무에 유채, 96×85

한스 홀바인 2세의 이 작품에서 부유한 상인의 사무실이 질서정연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웅덩이 덮여 있는 탁자 상단도 정확히 묘사되지 않고 벽돌도 직각을 이루지 않고 있다. 화면 왼쪽 상단에 걸려 있는 금 저울도 평형을 이루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 같아도 홀바인은 미묘한 변화를 주었다. 그것은 모든 물질의 부서지기 쉬움과 헛됨을 암시하기 위해서였다.

국립미술관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기 위해 그린 작품이 피터 브뤼겔의 〈네덜란드 속담〉이다. 이 그림은 총 백여 개의 속담을 한 장의 그림으로 집약해서 표현한 것이 특징이며, 그림으로 대부분 인간의 어리석고 무분별한 행동을 묘사했다.

화면 중앙 중심에 있는 푸른색 지붕의 누각에서는 악마가 고해성사를 듣고 있다. 그 앞에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남편에게 푸른색 모자가 달린 망토를 씌워주고 있는 것은 그녀가 지금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른 망토는 부정한 아내를 암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어리석음을 상징한다. 부부 뒤로 푸른 옷을 입은 수도사가 그리스도에게 수염을 붙이려고 있는데, 그는 위선자를 상징한다. 푸른색은 전통적으로 기만을 나타내는 색이다. 기만과 죄악은 브뤼겔 작품의 특징이다.

화면 오른쪽 하단 널빤지 위로 한 손에 빵을 잡고, 오른손으로 다른 빵을 잡기 위해 팔을 벌리고 있는 남자는 이 빵에서 저 빵까지 손이 닿을 수 없어 끼니를 잇기 힘든 가난한 사람을 뜻하고 있다. 지붕 위에 빵이 널려 있는 집은 부자를 뜻한다. 화면 앞, 죽은 송아지 옆에서 구덩이를 메우고 있는 남자는 일이 터진 다



〈콩을 먹는 부부〉
1620년, 캔버스에 유채, 74×87



〈네덜란드 속담〉
1559년, 목판에 유채, 117×163

음에야 대책을 세우는 것을 나타낸다. 화면 중앙 푸른색 지붕 옆 으스스한 곳에 여우는 앉아 있고, 거위는 탁자 위에 있는 술병에 주둥이를 대고 있다. 여우 앞에 있는 접시는 비워있다. 이것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피터 브뤼겔(1525~1569)의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백여 개의 속담은 당시의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현재까지 쓰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라졌다. 이 작품에서 화면 왼쪽 뒤집어진 지구본이 이 작품의 주제이다. 뒤죽박죽인 세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립미술관에서 17세기 프랑스 농민들의 실상을 담은 작품이 라투르의 〈콩을 먹는 부부〉다. 늙은 농민 부부가 작은 그릇에 있는 완두콩을 짧은 숟가락으로 떠먹고 있다. 그릇 안에 있는 완두콩은 국물이 전혀 없어 딱딱해 보이지만, 늙은 부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먹는 것에 정신을 집중하며 먹고 있다. 간소한 식사와 늙은 농부가 그릇을 천 손으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은 농부 부부가 집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조르주 드 라투르(1593~1652)는 이 작품에서 생의 고달픔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인생을 받아들이는 농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종교적 사상을 드러냈다. 국립미술관이 있는 쿨투어포룸은 문화 중심지로 만들려는 계획에 따라 주변에 베를린 필하모니, 악기 박물관, 국립 응용미술관 등이 있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AF**



오페라 무대 위의 사람들 ④

투란도트, 그 치명적인 냉혹의 아름다움



영화 [트와일라잇]의 여주인공 '벨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한다. 차가운 뱀파이어와 뜨거운 늑대인간의 치명적인 유혹, 그 사이에서 벨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뱀파이어, 에드워드. 그는 언제나 벨라 곁을 찾아오지만 벨라와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차디찬 얼음이다. 뱀파이어 에드워드와 앙숙인 제이콥. 열정적인 늑대인간 제이콥에게도 벨라는 마음이 끌린다. 그에게는 에드워드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불 같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얼음과 불의 세계... 이 둘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던 벨라는 결국 치명적인 차가움의 유혹을 선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차가운 유혹을 거부하지 못한다. 언제나 따뜻한 울 그리워하면서도 차가운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자신만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음에도 또다시 우아한 냉혹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 [투란도트]에도 바로 이 우아한 냉혹을 지닌 주인공이 등장한다. 화려한 거대 제국 중국의 베이징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차가운 얼음공주, 투란도트가 있었다. 투란도트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했다. 투란도트의 할머니가 나라를 쳐들어온 이방인에게 치욕을 당했다는 피해의식에 남성을 증오하게 된 것이다. 투란도트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남성들에게 3가지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맞히지 못한 남성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잔혹한 투란도트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던지, 그녀에게 도전했다가 목숨을 빼앗긴 남성들도 저 세상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탄했다. 투란도트에게 도전했다가 형장에 끌려온 페르시아 왕자의 사형장 앞. 바로 이곳에 머나먼 이국땅에서 온 타르타르의 왕자 '칼라프'가 등장한다. 전쟁에서 패하고 이곳까지 도망을 온 칼라프는 우연히도 이 처참한 사형장 앞에서 아버지와 몸종 '류'를 만난다. 전쟁으로 나라를 잃은 이들은 서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한다.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릴 사이도 아주 잠시. 칼라프는 처형을 보러 온 얼음공주 투란도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연로한 아버지와 늘 자신만을 바라보는 류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투란도트의 우아한 냉혹에 한눈에 반한 칼라프는 기꺼이 도전의 문을 두드린다.

베이징 시에 사는 수많은 군중들과 궁정의 대신들이 지켜보는 긴장된 순간.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얼음공주 투란도트는 오만한 태도로 문제를 낸다. "어두운 밤에는 유령처럼 날아다니며 사람들 마음을 들쭉서 놓고는, 아침이 되면 사라졌다가 밤이 되면 다시 태어나는 것" 이 모호한 문제에도 칼라프는 자신 있게 대답한다. "그것은 희망!" 사람들은 밤마다 희망을 품었다가 아침이 되면 그것이 덧없는 꿈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얼음공주 투란도트는 칼라프의 대답에 흠칫 놀란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첫 번째 질문을 쉽게 맞힌 남자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2개의 문제가 더 남아 있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그것은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불꽃은 아니다. 그대가 패배할 때는 차가워지고 승리를 꿈꿀 때는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 목소리는 희미하지만, 그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긴 칼라프 왕자는 "피"라고 대답한다. 패배를 맞볼 때에는 차가워졌다가도 승리를 꿈꿀 때에는 다시금 뜨거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피였다. 이쯤 되면 얼음공주 투란도트도 당황하기 시작한다. 언제나 차갑기만 했던 그녀의 피도 당황함으로 달아오르고 만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만이 남아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순간 속에서 베이징의 군중도 칼라프를 응원하기 시작한다. 당황한 투란도트는 칼라프가 앉아 있는 곳으로 내려온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문제, 그것은 "그대에게 불을 붙이는 얼음, 그러나 그대가 뜨겁게 타오를수록 더욱 차갑게 어는 얼음... 그것이 그대를 종으로 삼으면 그대는 제왕이 되지. 그것은 무엇 일까?" 이 마지막 질문은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었다. 오랜 시간 고민한 칼라프는 망설임 끝에 대답한다. "그것은 투란도트!" 남성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할수록 더욱 차갑게 얼어버리는 여인, 그 이름은 바로 '투란도트'였던 것이다.

칼라프가 처음으로 3개의 문제를 모두 맞히자, 당황한 투란도트는 약속을 취소하려 한다. 하지만 투란도트의 아버지는 한번 정해진 신성한 약속은 결코 바꿀 수 없다고 밝힌다. 이제 아무도 투란도트의 편에 서지 않았고, 투란도트는 머나먼 이국땅에서 온 이름도 모르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다. 모든 문제를 맞힌 당당한 칼라프는, 당황해 하는 공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만약 내일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아맞히면 자신의 아내가 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에서 모면할 기회를 얻은 투란도트는 북경의 모든 군중에게 잠을 자지 말 것을 명한다. 모든 군중들이 이 이방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폴 포츠가 노래해 더욱 인기를 얻은 아리아 "공주는 잠 못 들고(Nessun dorma)"가 바로 이 장면에 등장하는 노래이다.

칼라프의 아버지와 류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투란도트는 다급한 마음에 이들을 고문하게 되고, 결국 류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칼라프의 비밀을 지켜준다. 잔혹한 고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던 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투란도트에게 말한다. 결국 약속한 시간이 되자 더욱 불안해하는 투란도트에게 칼라프는 키스를 하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 칼라프는 결국 투란도트에게 모든 것을 말긴 것이다. 그의 이름을 알게 된 투란도트. 하지만 이미 칼라프에게 마음을 빼앗긴 투란도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랑." 얼음처럼 차가웠던 공주의 마음도 칼라프의 열정적인 사랑 앞에 녹아내리고 말았다. 우아한 냉혹의 여인, 투란도트도 결국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던 것이다. 사랑, 그것만이 치명적인 냉혹을 열정으로 바꾸는 유일한 것이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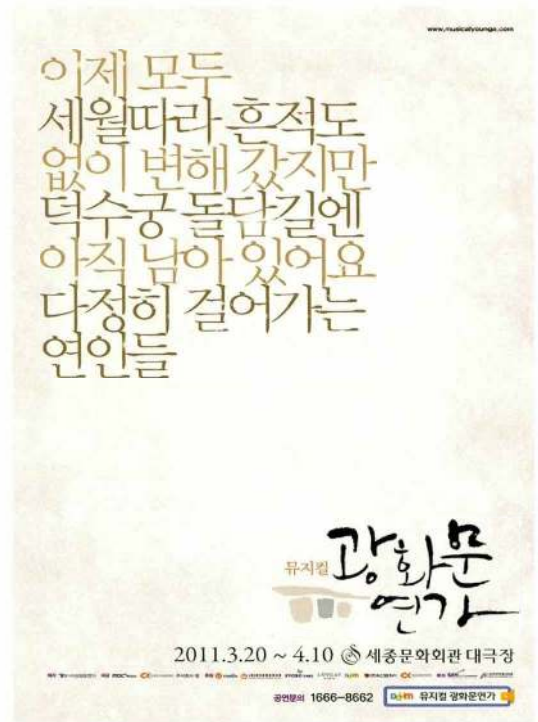
첫 사랑의 노래, 뮤지컬<광화문연가>

‘사랑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다’

한 쌍의 남녀가 있다. 서서히 밝아오는 무대 한 편에서 현재의 상훈과 지용이 각자의 피아노를 앞에 두고 연주를 이어간다. 그에 맞춰 남녀는 춤을 춘다. 지용과 현재의 상훈의 대화는 ‘옛사랑’이라는 노래 앞에 멈추게 되고 상훈이 작곡하지 않았지만 상훈의 이름으로 발표된 곡에 대해 지용은 의구심을 내비친다. 그리고 상훈은 그 곡에 대한 기억을 꺼내기 위해 과거로 들어간다. 무대 위엔 80년대 광화문 거리, 골방 작업실이 있는 라이브 카페 블루아지트가 보인다.

그때부터 시작된 아마추어 작곡가와 무명가수의 지하 자취방동거. 곧이어 그 무명가수의 3집 앨범 <난 아직 모르잖아요>는 150만 장 판매를 기록하며 판매 순위 1위에 등극한다. 그리고 팝 위주였던 라디오 음악프로를 가요위주로 바뀌게 한 가수, 이문세. 대중 음악평론가 최민우는 이문세의 노래에 대해 “화염병과 최루탄 사이에서 기형도와 이성복을 읽던 음악 팬들은 그 스물 다섯 곡에 열광했다.”고 평했다. 그것은 ‘사랑’ 위주의 통속적 노래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뛰어넘어 ‘대중’을 관통했다. 80년대, 무엇이 젊음을 아프게 했는지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무대에서 그것은 여전히 빛나고 있을 것이다.

- 기간 : 4월 10일까지
- 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홈페이지 : www.musicalyounga.com
- 가격 : VIP 12만 / R 10만 / S 8만 / A 5만 / B 3만원(금, 토, 일은 + 1만원)



인간 욕망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손짓

연극 <봄날>



연극 <봄날>은 공연전체의 설화적 세계를 수렴하면서 장면과 장면 사이에 시, 그림, 소설, 영화, 편지 등 한 폭의 동양화 같은, 극은 움직임과 리듬으로 극 전체의 변주를 만들어 내면서 봄날의 여백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이어 간다.

인색한 절대 권력자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상한 장남, 천식을 앓는 병약한 막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혹사당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다섯 명의 자식들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렵게 생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산불이 나자 절간의 스님들은 주워 길렀던 동녀를 이 집에 맡기고 사라져 버린다. 늙은 할아버지는 젊어지기 위하여 동녀를 품고 자고, 동녀를 사모하는 막내는 피를 토하며 애통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아버지가 송진을 바르고 눈을 못 뜨는 사이에 아들들은 구들장을 뜯고 항아리 속의 돈을 나누어 가지고 도망쳐 버린다.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무대 위의 여백과 조용히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공연, 봄날 타오르는 산불처럼 반역을 꾀하는 아들들의 열정과 후회로 참회하는 아버지의 그리움이 시끄럽지 않게 해학적으로 그려지는 공연, 서양에 뮤지컬이 있다면 동양엔 이런 연극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봄날의 설레임에 추를 달아놓은 진정한 ‘봄바람’ 같은 연극을 만나보자.

- 기간 : 4월 17일까지
- 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 홈페이지 : www.hanpac.or.kr
- 가격 : R 5만 / S 3만 / A 2만원

Opinion

4월은 체력검정의 달.
건강하게 합격합시다!

* Health Diary

견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 길 21

* 책마을



4월은 체력검정의 달.

건강하게 합격합시다!

완연한 봄기운으로 가득 찬 4월입니다. 춘곤에서 벗어나려하니 체력검정이 코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로 지난 겨울은 유독 길게 느껴졌는데, 우리 공군 장병들은 얼마나 체력단련을 하셨는지요. 필자와 같이 체력단련을 다소 게을리 하신 분들은 매년 찾아오는 체력검정이 솔직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군 체력검정 관련 사건보도 소식은 주변 분들을 긴장케 합니다. 올 한 해는 모두 별 탈 없이 체력검정 합격하길 소망하며, 이번 달은 "체력검정"을 주제로 다뤄 보겠습니다.

체력검정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니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과 같은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직업에서 실시하는 체력시험이라 합니다. 군인들은 3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실시합니다. 이 중 윗몸일으키기는 복근의 근력을 측정하고, 팔굽혀펴기는 어깨 근육의 근력을, 3km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실시하는 근본적 이유는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의 발달과 컴퓨터의 보급 등으로 신체활동 감소에 의한 운동 부족증은 자연 현대인들에게 체력저하를 가져옵니다. 이런 현상은 최첨단 정예군으로 변모하는 공군 장병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체력검정을 준비하는데는 평소 운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력 검정 시 사전 준비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뚱뚱하거나 운동을 오래 안하셨다면, 처음부터 높은 강도의 운동은 삼가십시오. 무릎이나 발목에 염좌 등의 부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최대 운동능력의 40~50% 정도로 하다가, 점차 운동량을 늘려 가십시오. 참고로 식사 직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체내에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조금 쉬셨다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 후에는 조금은 힘들더라도 마무리 운동을 꼭 하십시오.

미 공군 체력검정 시스템 소개

정보화 시대에서 운동의 중요성에 관한 각종 건강관련 소식자료는 누구나 쉽게 접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의 효과 및 필요성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미 공군 체력검정체계를 한국 공군과의 차별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만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공군 체력검정과 달리 미 공군은 비만도 측정이 검정항목에 포함됩니다.

U.S Airforce Physical Fitness standard

검정사항	3km 달리기	BMI(비만지수)/복부둘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항목별 부여점수	50	30	10	10

U.S Airforce Fitness Level 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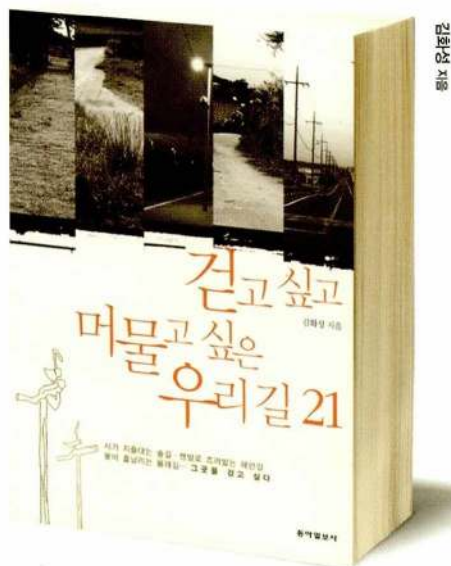
최종 평가	점 수
excellent	≥ 90
good	75~89.9
poor	< 75

미 공군 체력검정 결과 처리

Good/Excellent ⇨ 합격 ⇨ 1년 후 체력검정 시행

Poor ⇨ 불합격 ⇨ 3개월내(90일)에 재평가를 시행

비만인구가 많아서일까요. 미 공군 체력검정체계에서 주목할 점은 비만점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비만 장병은 기본적으로 체력검정을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만은 고지혈증을 비롯해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높이며, 운동 시에 관절 및 심장에도 자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체력검정에 비만항목을 포함한다는 것은 결국 평시적인 건강관리를 요구하며, 자신의 몸을 관리한 정도가 평가시스템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체계가 미 공군 장병들의 기초 체력강화 기여 및 체력검정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 공군 체력검정에서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7주 이내 재평가를 시행할 수 없으며, 대신 6주 특별체력강화프로그램에 입과 체력검정 통과에 도움을 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력 검정시 안전(safety)에 관해서도, 미 공군은 검정 시행 전 심폐이상 여부 확인 설문지(physical activity readiness questionnaire, PAR-Q)를 시행합니다. 신체 건강문제로 인해 3km 달리기를 못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 오래걷기 내지, 심폐기능 모니터링이 부착된 자전거타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들은 심장약을 포함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대안들은 체력검정 시행 전 의학적 이상소지자를 사전 분류하고, 이상소지자에 대해서는 안전한 대체 평가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군 장병들의 무사 체력검정 통과를 기원하며 이번 달 건강칼럼을 마치겠습니다. **AF**



어느 선배가 제게 물어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데 장대 위도 책 많이 읽지요? 좋은 책 있으면 추천 좀 해줄래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동안 저는 글을 쓰면서도 책을 잘 읽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흔히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多讀), 많이 쓰고(多作), 많이 생각(多商)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책마을」에 새롭게 동지를 틀면서 좋은 습관 한 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달에 한 권이지만 꼬박꼬박 책을 읽게 된 것이지요. 물론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만한 좋은 책을 고르는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서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책마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책을 고르고, 읽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제게 또 다른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책을 읽는 것과 더불어 새해를 맞이하면서 실천하기로 다짐했던 것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바로 ‘여행’입니다.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꼭 여행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올해 초 벌써 두 번씩이나 집을 옮기면서 일상의 환경조차 익숙하지 않은 까닭에 낯선 여행을 경험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봄입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엉덩이가 들쭉거리고 마음은 싱숭생숭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향하고, 어디가 불안한 곳이 없을까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싶지만 마땅한 장소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야 인터넷 검색을

하면 여행 정보들이 우르르 쏟아지지만 대부분은 텔레비전 속의 각종 연예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미 유명해진 곳들뿐입니다.

먹고, 마시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행지의 본래 색깔은 온데간데없고 비슷비슷한 음식점들과 잡상인들의 호객행위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렇다고 아예 해외로 눈을 돌리자니 우리나라 땅에 아직도 제 발길 닿지 않은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 봄에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꾸며진 인위적인 곳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 고즈넉한 곳에 가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견고하고 머물고 싶은 우리 길 21」 속의 길로 향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걷기만 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 곳을 거닐다보면 이 땅 구석구석에 마치 핏줄처럼 자리잡고 있던 그 길들이 묵묵히 지켜보고 함께했던 우리의 역사, 그리고 그 길을 삶의 터전 삼아 매일매일 오가시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누님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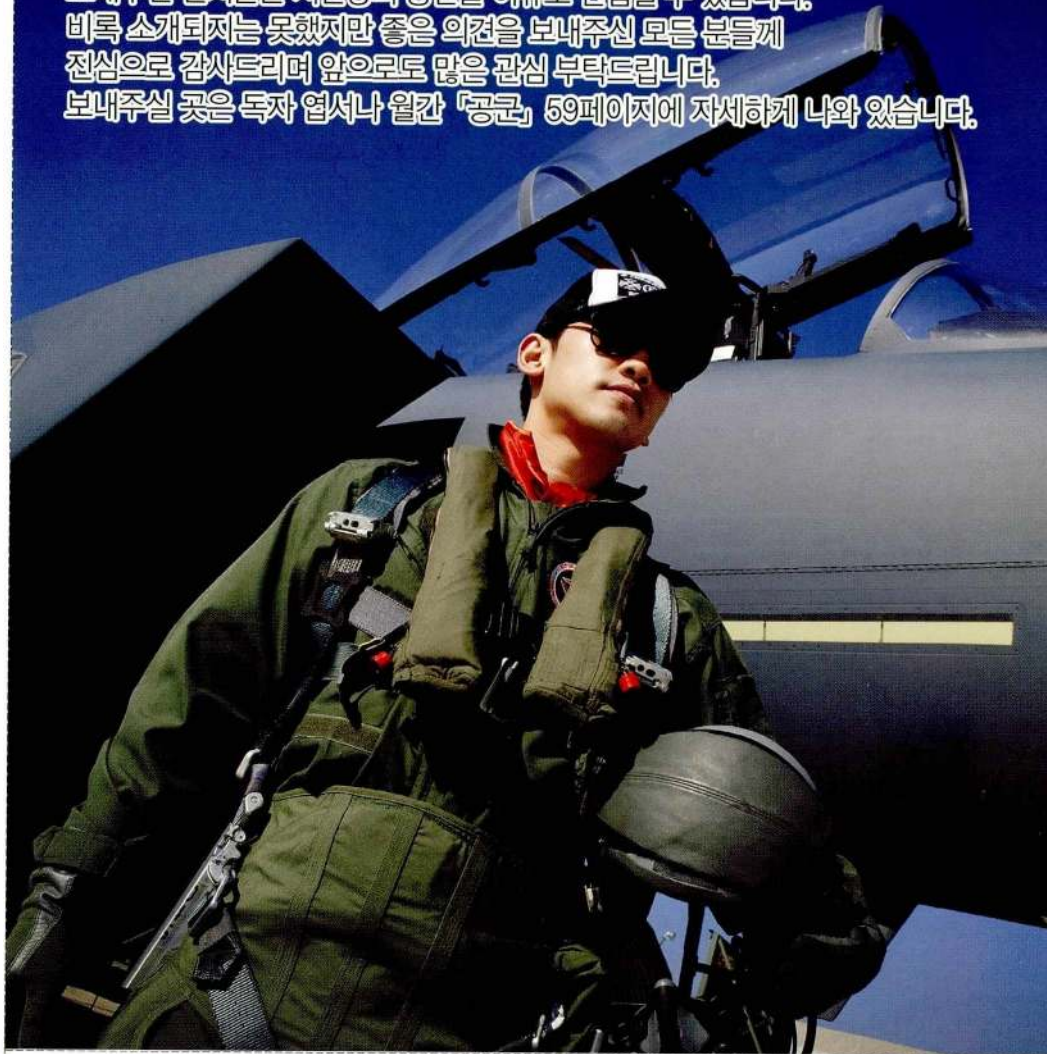
특히 이 책 속에는 남몰래 그 길을 다녔았던 여러 작가들이 써놓은 문학 작품들이 마치 연애편지처럼 담겨져 있어 아직 가보지도 않은 길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2011년 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길 하나씩 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 역시 길을 하나 놓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걷다보면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우리의 「책마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AF**

2011 April

no.394

P O S T C A R D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5.1~2011.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1
April
no.394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월간 「공군」 4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4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표지와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
F-15K가 입혀진
카드 USB 4G를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4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4월 30일까지

1. 「빨간마후라」 이후, 4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공군소재 영화는 무엇인가?
2. 영화 「토르 : 천둥의 신」에서 등장하는 신으로, 북구신화의 절대신이자 주인공 토르의 아버지인 이 신은 누구인가?
3. 13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미술의 발전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독일의 박물관은 무엇인가?

2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스텔스 2. RCS, RAM, AESA 3. 네 안의 불(희망)

퀴즈 당첨자 전북 전주시 **김주진** ● 전북 익산시 **온세라** ● 전북 장수군 **조창임**
서울 동대문 **박종선** ● 전남 여주시 **방태숙** ● 경기 평택시 **이석준**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스페이스 챌린지 2011

SPACE CHALLENGE 2011

본선대회

5월 28일(토) [예비 6.5(일)]

공군사관학교

접 수

공군홈페이지

[www.airforce.mil.kr]

주최 · 주관

대한민국 공군

후 원

공군발전협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천문연구원

대한민국항공회

한국항공소년단

공군과 함께 꾸는 무한대를 향한 꿈

